

“여보, 깰까요?”... 내년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내년 공시이율 3%→2.5% 인하
금리 오르는데 예정이율은 하락
업계 “내후년쯤 인상기조 반영”

내년에 보험료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의 평균 공시이율은 2.5%로, 지난해 3%보다 0.5%포인트 줄어 들었다. 이와 맞물려 내년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은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이율이란 보험사에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은행으로 따지면 예·적금 금리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은 공시이율을 매달 발표하는데 1년간 발표된 공시이율을 보험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 ‘평균 공시이율’이다. 금감원은 매년 말 지난해 10월부터 그해 9월까지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도별 평균 공시이율’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평균 공시이율은 보험사들의 다음 해 예정이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오를 경우 보험

료는 5~10% 인상된다. 금감원이 평균 공시이율을 발표하면 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된다. 평균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책임준비금 규모가 늘어나는 식이다. 이때 생기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올린다는 설명이다.

올해 같은 경우 보험사들은 시차를 두고 각각 0.25%포인트씩 예정이율을 인하했다. 앞서 금감원에서 발표한 2016년 평균 공시이율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0.5%포인트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0.25%포인트씩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5~10% 사이에서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보험사 움직임이 내년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갈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은행에서는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오히려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예정금리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계약자 배당금 부리 이율,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등 다른 이율 산정에도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1금융권보다 금융정책에서 한 발 느린 편”이라며 “보통 1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내후년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보험업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강추위가 열린 한강 고드름



전국이 영하권에 든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독성유원지 선착장의 밧줄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여성금융대상’ 개최... AXA다이렉트 등 수상

〈여성리더혁신부문 대상〉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사단법인 여성금융인네트워크(여금넷)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2017 대한민국 여성금융대상’을 개최했다.

여성금융대상은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쓴 금융회사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조직과 사회 내 양성 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

됐다.

이날 행사는 김상경 여금넷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2개의 금융회사와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XA(악사)다이렉트는 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 장관상인 ‘여성리더혁신부문 대상’을 받았다. 악사다이렉트는 임직원의 64%, 부서장의 30%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 등 여성 인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부산은행은 금융위원장상인 ‘양성평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인 ‘여성금융인 대

상’에는 KB금융지주 박정림 부사장이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병두 의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손병두 사무처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김정우 이투데이 미디어 총괄대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진 SK증권 사장, 박상영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등 금융권 주요 인사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여금넷)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美 유엔대사 “평창에 전체 선수단 파견”

불참설 일축... 올림픽 참가 재차 확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대표팀 전체가 내년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선수단의 참가가 확정된 셈이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팀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올림픽 팀 전체가 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올림픽에서 했던 일을 이번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키보면 우리는 항상 올림픽의 안전을 개최와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해왔다”면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헤일리 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거론하며 미국 대표팀의 출전이 “결정되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은 입장을 선화해 모든 선수단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미국 시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의 앞선 발언 이후 미국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백악관과 미국올림픽위원회(USOC) 등이 참가 의사를 확인하며 우려를 종식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삼성重 신입 사장에 남준우 내정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인 남준우(사진) 부사장이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삼성중공업은 11일 “현 대표이사인 박대영 사장이 경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며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인 남준우 부사장이 후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실적 부진을 이유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 등에 쓰인다.



남준우 신입 사장은 1983년 삼성중공업 입사 후 선박개발 담당, 시운전팀장, 안전품질담당 등을 거친 조선 생산 전문가로 삼성중공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 책임자로 주목돼 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박대영 전 사장은 사의를 표명하기 전 이사진과 사전 협의를 통해 남준우 신입 사장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못막는다

월街 데뷔시킨 미국

오늘 첫 선물거래...한때 사이트 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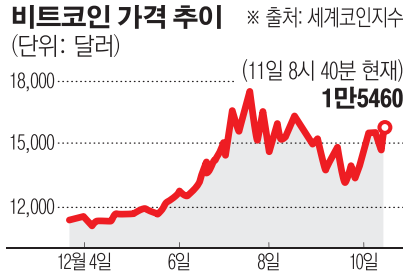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8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파생상품 시장을 좌우하는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일 오후 5시(한국시간 11일 오전 8시)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거래가 시작되자 CBOE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한다.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9시 현재 CBOE에서 비트코인(XBT) 2018년 1월물은 개장가가 1만5460달러였고, 1만5940달러에 398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 1월물 거래가 개시된 지 7분 만에 120건가량의 거래가 이뤄졌다. CBOE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제미니에서는 비트코인이 1만53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달 초 선물 거래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나 선물 거래 개시를 앞둔 지난 주말 내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7일 한때 1만9000달러 이상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9일에는 급락해 1만4000달러 부근에 머물렀다.

랜디 프레드리크 찰스슈왑 파생상품부문 부회장은 “지난 2주간 우리가 보았



던 비트코인의 급격한 상승은 아마도 선물시장 진출을 앞두고 낙관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 헤이스 비트맥스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하락에 대해 “한 주간 가격이 80%가량이나 올랐다”면서 “급격한 조정세가 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NBC는 선물 거래는 규제가 없다는 위험과 사이버 보안 및 사기 문제가 지적된 가상화폐 거래의 대안이라고 전했다. 프레드리크 부회장은 “선물 거래

가상화폐 못민졌다

족쇄 준비하는 한국

일부 거래소 퇴출...내년 고강도 규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 퇴출과 같은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규제 방향을 정하고 내년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의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2018년 상반기 중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국내에 처음으로 마련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2~14일 중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 가상화폐 특별팀(TF)은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유사수신법에 포함, 해당 법안으로营业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안 개정이 늦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 및 업무 정지가 고려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자격 제한이나 투자금 한도 설정은 법무부와 금융위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 자격이나 금액을 정부가 제한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금융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격을

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가상화폐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찰스 슈왑과 TD아메리트리이드를 비롯해 여러 금융회사들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CBOE는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거래 가격을 근거로 한다. CBOE는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하루 23시간 이상 운영한다. 제미니는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인 케머런·타일러 윈클보스 형제가 설립했다. 10일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제미니가 8월 10시간 동안 거래 중지 사태를 겪었다며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부여해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기조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1코인당 174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8일 9시 28분 거래 가격인 2480만 원에 비해 29% 하락한 수치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데이터 뉴스 Data News

지난달 外 主 1조8600억 순매수... 채권은 순매도

11월 중 주요 국가별·지역별 주식 유출입 현황 (단위: 십억 원, 절제기준)		
순매수 상위	아랍에미리트	988
	미국	856
	노르웨이	491
순매도 상위	몰타	-424
	케이만아일랜드	-312
	싱가포르	-207

※ 출처: 금융감독원

와 케이만아일랜드(3000억 원) 등은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634조9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보유 규모는 미국(264조6000억 원)이 가장 커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의 41.7%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178조7000억 원·28.1%), 아시아(77조8000억 원·12.3%), 중동(27조1000억 원·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 채권의 경우 외국인은 지난달 1조5610억 원을 순매도했다. 글로벌 급리 인상 기조로 채권 거래도 순유출로 전환했다. 지역별 순매도 규모는 유럽(-9000억 원)과 아시아(-4000억 원), 중동(-2000억 원) 순이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채권은 99조6000억 원으로, 보유 잔고가 100억 원을 밑돌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한국 국민부담률 인상 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빠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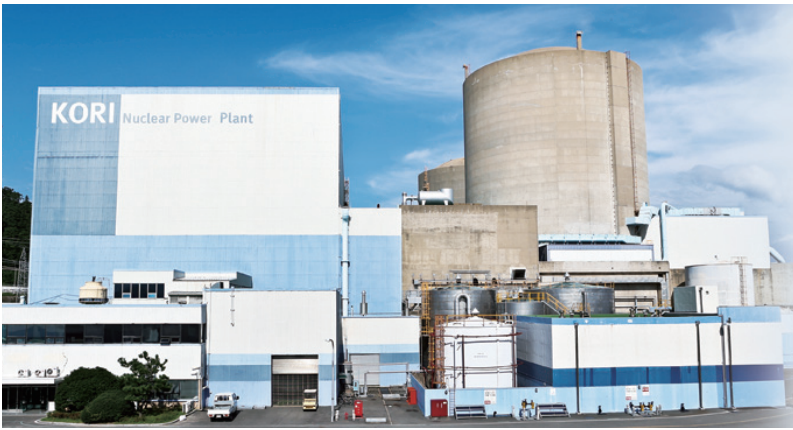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연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상승세가 가팔라. 조세형평성 개선을 통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11일 OECD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OECD 평균(34.3%)에 비해 아직 8%포인트 낮지만, 급격한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6~2016년) OECD 회원국 평균이 0.7%포인트 오르는 동안 한국은 2.7%포인트 급등했다. 4배에 이르는 상승폭이다. 이 같은 속도는 세수 호황 기조 속 복지를 증시하는 문제인 정부와 맞물려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제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 19.4%로 상승한 바 있다. 내년에는 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 등 복지 지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속할 요인으로 꼽힌다. 중부담 중복지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수순이지만, 과세형평성을 높여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3년 새 조세부담률은 1.5%포인트, 사회보험료부담률은 0.5%포인트, 국민부담률은 2.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며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原電 ‘고리 1호기’ 해체에 15년 6개월 소요

〈2032년 12월 완료〉

해체사업계획 살펴보니

올해 6월 영구정지에 이어 본격 해체를 앞두고 있는 고리 1호기가 2032년 12월 해체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총 15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전 해체 실적을 조기에 확보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한수원과 정부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은 4단계에 걸쳐 해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한수원은 주민공청회와 해체계획서 승인 등 해체 인허가까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단계로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 시설을 구축해 2025년 12월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원자료를 절단·제염하고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는 등 본격 해체에 8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2031년부터 부지를 복원하기까지 2년이 소요돼 2032년 12월 해체 완료 보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리 1호기는 대(對)국민 개방을 통해 원전 홍보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인허가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기 한수원 해체사업팀장은 8일 열



고리 1호기 해체 주요 일정

인허가(5년) (2017년 6월~2022년 6월)	주민공청회, 해체계획서 승인
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8.5년) (2017년 6월~2025년 12월)	안전관리·정기검사, 건식저장 시설 구축
본격 해체(8.5년) (2022년 6월~2030년 12월)	원자로 절단·제염, 건물·시설 철거
부지 복원(2년) (2031년 1월~2032년 12월)	부지복원 처리, 해체완료 보고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해체기술 선진국의 80% 수준... “2021년까지 기술력 확보” 2025년 末까지 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 2031년부터 부지 복원 原電홍보시설 활용 등 추진... 완벽한 해체로 기술수출 기반 마련

린 ‘2017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 기술로 해체할 수 있는 상용화 해체 기술을 2021년까지 확보하는 동시에 고리 2호기 안전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원전 해체 사업을 원자력계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해체 역량 확보 후 해외 해체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특히 해체 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정별 분리 발주, 고리 1호기 단독 즉시 해체, 국내 해체 산업 인프라 적기 조성으로 후속 호기 해체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계 원전들의 영구정지로 인한 해체 시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향후 20~30년간 전 세계 원전 보유국에서 원전 해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5~2019년에는 원전 76기가 해체되며 2020년대에는 183기가 해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대

와 2040년대 이후에도 각각 127기, 89기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440조 원(2015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전체 해체 비용 중 외부에서 시장 진입이 가능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38.5% 정도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며 국가 주도 기술 개발 후 자국 기업이 원자력시설 해체작업을 수행했다. 국내는 원자력 연구시설 해체를 통해 소규모·저방사능 시설 해체 기술을 확보했다. 국내 해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다. 정부가 해체 핵심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엘리 기자 ellee@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公共기관 채용비리·‘낙하산’

‘낙하산 인사’로 앉은 기관장, 정치권 청탁에 자유로울 수 없어 절차 무시 편법 채용... ‘윗물이 흐리니’ 임직원 부패 등 ‘악순환’

채용비리, 부패 등 공공기관의 복마전식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정권마다 관행처럼 굳어진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가 크게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8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전수 조사 결과에서 밝힌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2234건에 달했다. 기관 1곳당 8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공고도 내지 않는 껌껌이 채용에다 합

격시켜야 할 지원자를 위해 합격자 수를 늘리고 나서 기어코 최종 합격을 시킨 기관도 있었다. 윗선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을 뽑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2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정부는 또 이번 점검 결과 19개 기관에 대해선 심층 조사가 필요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인사원서를 수없이 써도 취직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분통을 터트릴 만한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남부발전은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무려 3억9800만 원에 달했고, 한 국가스공사는 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이 무려 22명이었다.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현직 기관장급이 부패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고 매년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에는 실패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것은 결국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친박근혜 인사인 이승훈 사장이 사퇴하면서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노조도 유력한 신임 원장 후보가 정치권 인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면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거세질 전망이다.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계자는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관을 모두 감독할 수 없으며, 이는 경영평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채용비리, 부패 등 기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sogood@

all ways INCHEON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서비스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 공기업

인천도시공사

先憂後樂(선우후락)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민보다 먼저 고민하고, 시민보다 나중에 웃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週 35시간 근무’ 다음 주자는 포스코?

‘4조 2교대’ 도입 이미 週 평균 30시간 추진
정부 정책에도 우호적… 우선 후보로 거론
CJ·롯데·현대百 유통업계도 시행 가능성

삼성전자·SK 등 “아직 구체적 계획 없다”
中企는 “휴일수당 등 추가비용 부담” 난색
‘생산성 향상’ 속제…산업계 확산 지켜봐야

신세계의 35시간 근무시간 단축 발표 이후 후속 대기업 움직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먼저 롯데와 현대백화점, CJ 등 유통업계가 신세계의 뒤를 이을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제조업에선 포스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과 SK 등도 근무시간 단축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35시간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파격적인 근로시간 단축 소식을 접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35시간으로 줄인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향후 우리 방향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신세계와 같은 유통업계에서 35시간 근로시간을 따라가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 이미 CJ와 롯데, 현대백화점그룹 등은 직원 복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CJ그룹은 5년마다 최대 한 달간 재충전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도 신선했다.

롯데그룹도 현재 백화점, 카드, 홈쇼핑 등 19곳에서 운영 중인 ‘PC오프(PC-OFF)’ 제도를 전 계열사에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PC오프제는 퇴근시간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준비 현황

삼성전자	
2012년부터 자율출퇴근제 시행. 주당 52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직원 독려	
현대차	
법 개정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검토	
SK하이닉스	
법 개정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검토	
포스코	
2011년부터 4조 2교대 도입. 1주 평균 30시간 근무체제	
롯데그룹	
‘PC오프’ 제도 전 계열사에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도입.	
CJ그룹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운영	

30분 이후 및 휴무일에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제도다. 연장 근무 필요시 반드시 부서장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초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업무시간 외 모바일을 이용한 업무 지시 금지, 골자로 하는 ‘모바일 오프’ 제도도 내년 중 계열사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제조업에선 포스코가 근로시간 단축 후보로 거론된다. 이미 1주 평균 30시간 근무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기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회사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4조 2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주 5일 기준 약 30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4조 2교대는 4개의 근무조 가운데 2개조가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이때 나머지 2개조 근로자는 휴무다. 1998년 유한킴벌리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2015년부터는 4조 2교대를 유지하되 근무방식을 바꿨다. 하루 12시간씩 이틀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쉬는 근무형태로 주간 2일 근무하고 2일 휴무, 그리고 야간 2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면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반면 1년 기준 휴무일은 4조 3교대(103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면서 190.5일이 된다. 365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쉬는 날인 셈이다.

4조 3교대와 비교하면 연간 근무시간은 1920시간으로 다를 게 없지만 휴일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게 장점이다.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해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학습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 근무기강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에게 가능하면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라는 권고안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전자 측은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만 지키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제’를 201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SK, LG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법 개정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 역시 “법안 개정에 맞춰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문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 부분 등에 대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더 치명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12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중 약 8조6000억 원이 300명 미만 사업장이고 약 3조 3000억 원은 3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다.

중기업중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남가라는 문제가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휴일에 근무해야 하고 야간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청년 채용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송영록 기자 syr@

‘가상화폐 해킹’ 주의보

한국인터넷진흥원 ‘내년 7대 사이버 위협’ 전망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대상 표적공격 많아질 것”
평창올림픽·지방선거 겨냥한 스미싱 문자도 증가

국내 보안업계가 내년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스미싱 문자도 성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 가락동 본사에서 이스트시큐리티, 안랩, 하우리, NSHC, 잉카인터넷, 빙스캔 등 국내 주요 보안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8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상화폐와 비트코인과 관련해 급전적 이익을 노리는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창용 안랩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공격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택 빙스캔 팀장은 “내년에는 암호화 통신을 통한 유해사이트와 악성코드의 유포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가상화폐를 탈취하기 위한 사칭 사이트 유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을 노리는 공격은 대부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해킹이 가장 많았다. 내년에는 실제로 금전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표적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외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구축,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는 국가적인 대형 이슈가 발생할 때 허위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발송해 클릭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결혼식 청첩장, 세금징수, 교통법칙금 등을 사칭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영석 잉카인터넷 이사는 “내년에는 사회적 이슈 관련 대규모 공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 스미싱 문자 등 문서파일의 기능을 이용한 고도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賃貸등록 촉진 방안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정부가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중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와 부동산시장에 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져 있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 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해결 문제가 관건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로 등록해 매년 2000만 원 이상 월세 소득을 올리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만 연간 300만 원 이상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양도세 절감보다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임대소득이 고

공사가 6억 넘어도 稅 혜택 가능성
임대사업자 건보료 부담 완화 관건
“정책발표 늦어져 시장 혼란” 비판도

스란히 노출되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방안이 담기지 못한 것도 부처 간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것은 이에 대한 접점을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번 방안에 일정 부분 담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계속해서 미뤄지며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앞두고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누구도 이끌지 않지만
시대는 그를 따른다.

The New S-Class
Feel Intelligent Drive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웹사이트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로 (02)675-7500 경복 (02)6678-7500 강서 목동 (02)6355-0000 동대문 (02)2215-2233 반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서초 창계 (02)6007-0100 송파 (02)3434-4000 영등포 (02)6123-1400 용산 (02)709-3800 경기: 구리 (031)679-0900 부천 (032)713-4500 분당 서면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36-6000 수원 (031)740-5000 안성 (031)8094-6000 안양 평촌 (031)689-8900 일신 (031)907-7777 의정부 (031)878-3333 파주 (031)912-9000 인천: (032)770-8800 인천 송도 (032)860-3300 부산: 김천 (051)320-4000 금정 1688-2369 남천 (051)750-2000 부산 북구 (051)678-7000 해운대 1688-2369 원주 (033)741-8800 대전 (042)363-2000 대전 유성 (042)602-2000 원안 (041)620-7000 청주 (043)299-9000 군산 (063)454-8000 전주 (063)226-8000 순천 (061)900-8500 광주 (062)226-0001 대구 (053)629-9000 대구 서구 (053)624-2000 포항 (054)256-9001 마산 (055)296-1004 진주 (055)757-8118 창원 (055)280-8300 울산 1688-2369 제주 (064)800-9800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S 350 d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30kg, 자동9단), 복합연비: 13.0km/ℓ (도심연비: 11.3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8g/km
S 350 d 4MATIC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75kg, 자동9단), 복합연비: 12.4km/ℓ (도심연비: 10.9km/ℓ, 고속도로연비: 14.8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56g/km
S 400 d L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2.5km/ℓ (도심연비: 11.0km/ℓ, 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53g/km
S 400 d 4MATIC L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245kg, 자동9단), 복합연비: 12.3km/ℓ (도심연비: 10.7km/ℓ, 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56g/km
S 560 4MATIC L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275kg, 자동9단), 복합연비: 8.4km/ℓ (도심연비: 7.1km/ℓ, 고속도로연비: 10.8km/ℓ), 등급: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12g/km
Mercedes-Maybach S 560 4MATIC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345kg, 자동9단), 복합연비: 8.1km/ℓ (도심연비: 6.9km/ℓ, 고속도로연비: 10.3km/ℓ), 등급: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19g/km
※ 연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與 “근로시간” 野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오늘부터 2주 일정으로 임시국회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집중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 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식사)·5(농축수산물 10)·5(회환 10) ‘再修’ 김영란법 개정안, 오늘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식사)·5(농축수산물 10)·5(회환 10)’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식사는 현재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했다. 선물은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장례식 회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회환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위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외부위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상향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물을 구입할 때 원료·재료 비율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전원위는 총 15명이다.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중 정부위원 6명, 외부위원 8명이 있다.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개정안이 가결된다. 이날 전원이 역시 외부위원들의 참석과 찬반에 개정안 가결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이번 전위위에서도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내년 설 연휴 전 상한액 조정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2017년 정기국회가 끝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당론으로 정한 만큼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원한다. 반면 민주당은 규제 개선,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면서도 해당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야 간 협력이 예상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해 5월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25명 서명을 받고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세제와 인력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상태다. 여야 지도부의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나, 민주당이 의료산업 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재추진했으나 결론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이 법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끼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데 부정적이나 정부 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야당은 ‘의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감하다는 관측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대통령 特使’ 임종석 실장 이례적 중동 2개국 방문靑, 對北접촉·原電관련 부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석을 모색하기 위한 대북인사 접촉설이나 원전관련 일정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지만 청와대는 해외 파견 부대장병 격려차 방문이 주목적이라고 선을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청와대의 뒤늦은 임 실장 일정 공개 때문이다. 10일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은 해외 파견 부대 장병을 격려하고자 9일부터 1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아크부대과 레바논 동맹부대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0일에는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왕세제, 11일에는 마셴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 일정도 수행한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난번 비무장지대(DMZ) 방문했을 때와 공동경비구역(JSA) 장병 초청 때 ‘해외 나가 있는, 열사 땅에서 고생하는 장병이 눈에 밝힌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일정상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참모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10일 정오(현지시간) 왕세제 거처인 씨펠리스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에는 UAE 아크부대 김기정 부대장과 임 무수행 중인 장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복시계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UAE 방문을 마친 임 실장은 11일 새벽 레바논에 도착해 문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고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인 동맹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문화상 전 실장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14년 만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국민의당, 2박3일 호남 일정 마무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전북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전북 김제에서 열리는 ‘청년과 농업의 미래 현장 간담회’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호남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1:2당 맞서는 공수처 설치…이번에도 변수는 국민의당

여야가 예산 정국을 끝낸 직후 숨 돌릴 틈 없이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만큼 대선공약 이행에 집중할 태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문제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처리를 직접 당부한 만큼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어 지난 예산 정국 때와 같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추미애 대표는 8일 최

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는 물론, 올바른 개헌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직접 겨냥해 법안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당·청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한국

당은 공수처 설치를 ‘또 다른 국가권력기구 설치’로 규정하고 반대 여론을 펼치고 있다. 검찰을 개혁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검찰을 대신할 ‘칼’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는 “(여당의 공수처 설치) ‘민변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가 온몸으로 막겠다”고 공언했다.

변수는 국민의당이다. ‘표 대결’을 펼치는 예산 정국과는 다르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기울 경우 공수처 통과 가능성은 커진다. 또 지난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밀실 합의 논란이 제기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후원문의 1588-1940
www.childfund.or.kr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줄어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장난감은 늘었지만 친구들은 줄었습니다
문자는 늘었지만 소통은 줄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늘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줄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밝은 인성이 자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富의 대물림’ 절반이 서울

최근 5년 51조 중 23조...45% 집중
그 중 43%는 강남3구...전국의 20%

최근 5년간 상속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 약 50조 원 중 절반 가까이는 서울시 주민 소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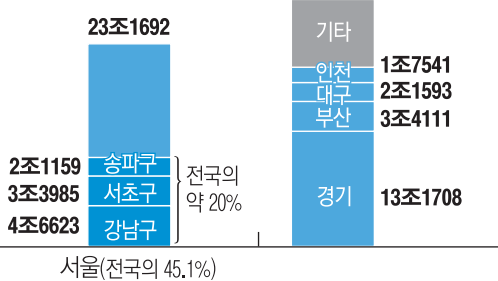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납세지별 상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전체 상속재산(51조4159억 원) 중 서울 거주 상속인 재산은 23조1692억 원(45.1%)에 달한다. 이 기간 상속재산 중 절반가량이 서울시 주민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부촌으로 분류되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주민의 상속재산은 10조1767억 원으로 서울 전체의 43%, 전국으로는 약 20%에 해당한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조66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3조3985억 원, 송파구 2조1159억원 등의 순이다.

또 서울 다음으로 상속재산이 많은 곳은 경기(13조1708억 원)였고, 이어 부산(3조4111억 원), 대구(2조1593억 원) 등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상속재산이 106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도 전남 3461억

2012~2016년 상속재산 현황
(단위: 억 원)

※ 출처: 국회 기재위 간사 박광온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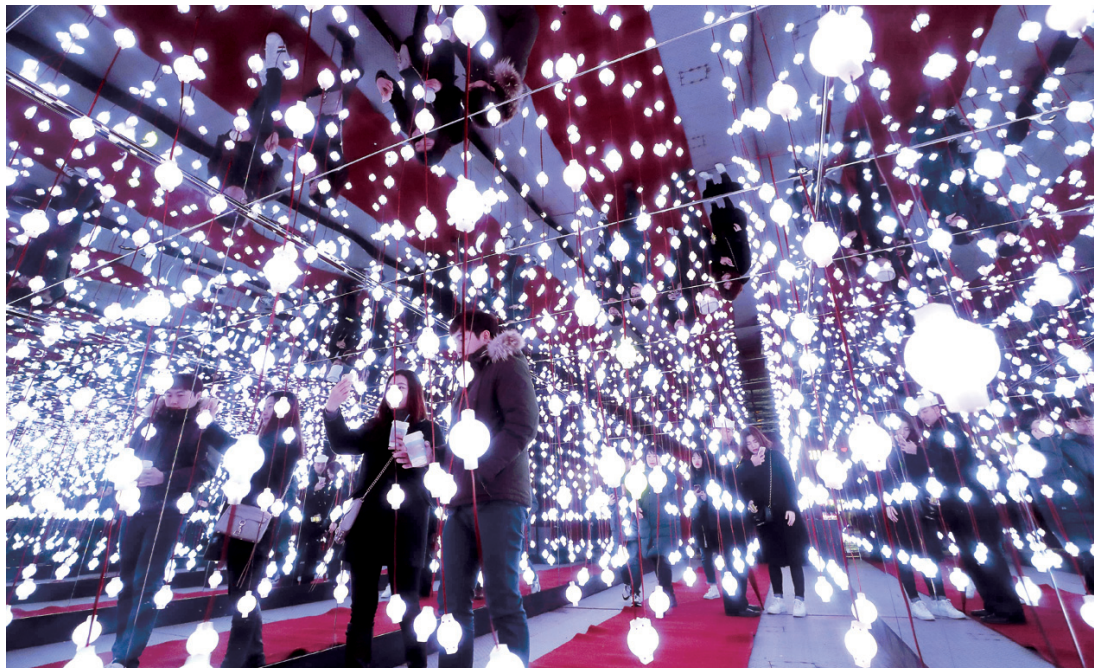
원, 제주 42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유형별 비중을 보면 토지 상속이 37.0%로 가장 많았고 건물(27.1%), 금융자산(18.0%), 유가증권(12.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주민 상속재산은 토지(26.4%)보다 건물(34.4%) 비중이 더 커 눈길을 끌었다.

강남 3구 건물 상속재산은 3조588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건물 상속액(3조400억 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토지 상속 비율이 (48.9%), 부산은 유가증권 비율(28.7%)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청계천 빛의 축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2017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전구로 꾸며진 선물상자 코너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업 ‘긴 터널’...취업자 수 8개월 연속 20%대 감소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 감소율이 8개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한 1297만 명을 기록했다. 6개월째 둔화했던 피보험자 증가폭이 확대돼 전환된 것이다.

기타운송장비(선박, 철도 등)의 상시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2100명 줄어 23.3%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달인 10월(23.0%)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0.2%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율은 4월(22.1%)부터 8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특히 조선업 도시인 울산과 경남의 해당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울산은 작년 동월 대비 1만 5800명(30.2%), 경남은 2만1100명(22.7%)가량 가입자 수가 줄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명이 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을 만드는 ‘기타운송장비’ 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기계·식품 제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4만2900명 늘었다. 제조업 가운데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전자통신은 7000명 증가했다.

한편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3000명) 늘었다.

박은평 기자 pepe@

‘국가公認 1급’ 블랙벨트 검사 2명 새로 지정

‘피해자 보호’ 박윤석·‘형사법제’ 김태우

2급 블루벨트 전문검사도 25명 추가 인증

검찰 내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이른바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에 2명이 추가로 지정됐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윤석(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와 김태우(48·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1급 공인전문검사는 총 5명으로 늘었다.

2013년 도입된 블랙벨트는 총 173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많고, 검찰을 대표할 만하다고 인정된 검사에게 수여된다. 전문 분야의 전담 경력과 학위 및 논문, 복무 평가, 인성 등에 대한 대내외적인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강욱 대전고검장과 7명의 위원의 숙의와 간간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시제조중, 유사수산·단단계, 성폭력 부

문에서 각각 3명의 검사가 블랙벨트로 인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박 부장검사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피해자보호 분야에서 블랙벨트를 받았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대구지검 등에서 근무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돕는 매뉴얼을 만들고, 범죄 피해자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매진했다. 2013년 안양지검 근무 시절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인 ‘뽕뽕’을 도입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썼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러한 공로로 3년 연속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표창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법제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2015년 법무부 형사법제 과장으로 근무하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디지털증거의 증거 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 발의 등에 참여했다.

한편 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해 여러 부장 의약품 사건을 규명한 이철환(47·사법연수원 27기) 경주지청장 등 25명을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인증했다.

장효진 기자 js62@

好材性 거짓뉴스 유포...한달새 1470원→7020원, 결국 37원 上廢

중국 테마주 열풍 노린 ‘株價 조작’

2015년 IR 통해 “중국권 유통사업 진출·사후면세점 설립”

서울남부지법, 씨엘인터내셔널 실사주·대표에 징역·벌금형

해외정보 확인 어려운 점 악용...피해자 290명 민사소송도

중국권 유통사업 진출, 사후면세점 설립 등의 호재성 뉴스를 언론에 알리며 중국 테마주 열풍을 노렸던 주가조작단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엘인터내셔널 실사주 이모(41)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박모(53)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45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기업설명회(IR)를 통해 거래처인 ‘석유생활망’이 중국 2대 석유회사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CNPC)’ 자회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관련 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들을 위한 복지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홍보했다. 석유생활망을 통해 중국 내 2만 2000개 주유소 편의점에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한 뒤 3대 석유회사로 확대해 제품을 유통하는 계획이었다. 또 석유생활망이 씨엘인터내셔널에 2016년 초까지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다.

그 결과 2015년 10월 1일 1주당 147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다음 달 13일 7020원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거래처의 실상은 자본금 6억 8000만 원 규모의 회사에 불과했다. CNPC 자회사나 관련 회사도 아니었다.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6년 9월 7일에는 37원까지 하락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에게 다른 기업을 인수할 정도의 자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단기

간에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이나 누락의 표시행위를 하거나 허황된 내용의 중국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불과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주가가 1470원에서 7020원까지 4.7배 상승했다가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씨 등은 자기자본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다른 비상장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한다고 하는 등 이른바 ‘펄(주가 부양을 위한 거짓 정보)’을 이용해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투자자들이 해외사업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투자 피해자 강모 씨 등 290명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Design Leader's choice

2017 it Award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인 전문가
선정된 작품에 대해 수여하는 (잇-)award

시상식 : 2017. 12. 11(월) 17:30 /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7층 셀레나홀

시상부문 :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광고&프로모션, 북&에디토리얼, 아이덴티티&브랜드 패키지&용기디자인 | 서비스디자인 | 환경&공간디자인 | 디지털디자인 : 디지털&UX, 영상&애니메이션 | 생활산업디자인

2017. 8. 31(목) 기준 2년 내에 출시된 디자인 (완성품 기준)

주최 :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디자인정글(주), 이투데이미디어

it Award

은행권 연말 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4대 은행 부행장 30명 중 28명
국민·신한 은행장 취임 첫 인사
실력 위주로 세대 교체 전망

올 연말 4대 시중은행의 부행장이 전
면 교체된다. 이들 은행의 부행장 30명
가운데 대다수가 이번달 초 이미 임기
가 끝났거나 연내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KB국민은행의 하인 행장, 신한
은행의 위성호 행장, 우리은행의 손태승
내정자는 취임 후 첫 임원인사를 단행
하는 것인 만큼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
하나은행) 부행장은 총 30명으로 이 중

4대 시중은행 임원 인사	
은행	임기 만료 임원
KB국민은행	부행장 7명
신한은행	부행장 6명
우리은행	부문장을 포함 부행장급 11명
KEB하나은행	부행장 4명, 전무 16명 등 전무 이상 20명

28명 임기가 연내 종료된다.
KB국민은행은 이흥, 허정수, 오평섭,
박정림, 전귀상, 이용덕, 김기현 부행장
등 부행장 7명 모두 임기가 이번달 끝
난다. 하인 신임 행장은 지난달 취임한
후 이번이 첫 임원인사를 단행하게 된
다. 특히 하인 행장이 1961년생으로 젊은
CEO인 만큼 세대교체 차원에서 큰 폭
의 임원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다.

하인 행장이 내부 계파 중에선 비주
류인 옛 장기신용은행 출신인 만큼 이
번 임원인사에서 계파 안배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국민은행은 그동
안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해왔다.
신한은행은 부행장 7명 중 이동환 부
행장을 제외하고 서현주, 왕태욱, 최병
화, 권재중, 이기준, 허영택 부행장 등 6
명의 임기가 이달 만료된다. 신한은행도
3월 취임한 위성호 행장의 첫 임원인사
가 이뤄진다.
우리은행은 부행장급 임원은 이미 상
당수가 이번달 초 임기가 끝났다. 우리
은행은 부문장을 포함해 부행장급 12명
중 정원재 부문장을 제외한 11명 임기가
3일, 8일을 기점으로 모두 만료됐다.
손 신임행장의 첫번째 임원 인사인

만큼 지역, 계파 안배 등이 반영될지 관
심이 높다. 손 신임행장은 앞서 계파에
무관하게, 실력 위주의 시스템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손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업 출신들을 (인위적으로) 동수로 앉
히지 않고 능력 위주로 시스템을 통해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은 22일께 임원 인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전무 이상 20명(부행
장 4명, 전무 16명) 전원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부행장
절반 이상이 물갈이됐다.
농협은행은 이경섭 행장 취임 인사에
앞서 1일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부행장
(부행장보 포함) 13명 중 7명을 새로 선
임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韓銀 ‘최저자기자본규제’ 2022년으로 연기

위험가중자산 규모 72.5%로 설정
주담대는 LTV 수준 따라 차등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바젤3
시장리스크 최저자기자본규제 이행이
2022년으로 연기됐다. 아울러 위험가중
자산 규모 산출에 표준 방법이 도입되고
자본하한을 72.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35% 위험가중치를 적용하
던 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
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11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
면 7일(현지시간) 중앙은행 총재 및 감
독기관장(GHOS)들이 독일 프랑크푸르

트(ECB)에 모여 바젤3 잔여 규제개혁을
이같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행
시기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
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합의됐던 바젤은행감독위
원회(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
자기자본 규제 이행 시점을 당초 2019년
에서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시장 리스크가
과소 산출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
라 은행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예금,
대출 등 은행계정과 단기매매 금융상품
등 트레이딩 계정으로 구분하고, 트레이
딩 계정 자산에 대해 시장 리스크를 측
정해 동 리스크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을

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합의된 바젤3 잔여 규제개
혁 내용을 보면 우선 내부 모형으로 산
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표준방법 대
비 72.5%가 되도록 자본하한을 설정했
다. 이는 은행의 내부 모형 사용으로 발
생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 규모의 국가
간·은행 간 편차를 해소하고 위험가중
자산 과소 산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바젤1 기반에서는 80%가
적용됐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50%를
시작으로 2027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다만 국내은행들은 이미 이 같은 비
율을 충족하고 있어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게 한은측 설명이다. 이

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도 “한은도
지난해 6월 말 보고서를 통해 자본하
한 60% 적용시 1.1%포인트, 75% 적용시
1.8%포인트의 자본비율 하락을 추정한
바 있다”며 “해당 조치가 2022년부터 순
차적으로 시행되고 5년 이상 여유가 있
다. 국내 대형 은행지주사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영향
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활
용하는 표준방법과 관련한 위험가중치
도 세분화했다. 특히 바젤2에서 35%의
위험가중치를 일괄 적용하던 주거용 부
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LTV 수준에 따
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최근 50% 수준으로 축소된 국내
은행 LTV 비중을 감안하면 단일위험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25%로 되려 축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보험업계 CEO 10명 임기 만료 실적좋은 損保 ‘방긋’... 生保는 ‘우울’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 7번째 연임
中 안방그룹 인수 ‘동양생명’ 관심

내년 3월까지 보험업계 최고경영자
(CEO) 10명의 임기가 잇달아 만료돼 연
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적
이 좋은 손보사 CEO는 연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생보사는 일부 교체가 예상
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NH
농협생명 등 보험사 CEO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부터 3
월까지 오익환 DGB생명 사장, 이운배
NH농협손해보험 사장 등 10명의 임기
가 만료된다.
KB생명은 이달 임기 만료를 앞뒀던
신용길 KB생명 전 사장이 생명보험협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사장직이 공석이
됐다. 새로운 CEO는 이달 말 KB금융그
룹 계열사 인사 때 결정될 전망이다.
서기봉 NH농협생명 사장은 이달 말,
이운배 농협손해보험 사장은 내년 1월
말에 각각 임기가 끝난다. 다만 서기봉
사장은 관례에 따라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는 경영실
적이 좋은 이운배 사장의 연임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알짜까지 연임이 확정된 홍봉성 라이
나생명 사장은 15일 주주총회에서 의결
을 앞두고 있다. 홍 사장의 임기는 1년
단위로 2010년 말 취임해 이번이 7번째
연임이다. 내년 3월에는 차남규 한화생
명 부회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안양

보험사 CEO 임기		
회사	이름	임기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	2017년 12월
KB생명	신용길 사장	2017년 12월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	2017년 12월
DGB생명	오익환 사장	2018년 1월
NH농협손해보험	이운배 사장	2018년 1월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	2018년 3월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2018년 3월
KDB생명	안양수 사장	2018년 3월
DB손해보험	김정남 사장	2018년 3월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2018년 3월
메리츠화재	김용범 사장	2018년 3월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사장	2018년 3월
롯데손해보험	김현수 사장	2018년 3월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2020년 3월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	2020년 3월

수 KDB생명 사장, 김정남 DB손해보험
사장, 양종의 KB손해보험 사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사장, 박윤식 한화손해보
험 사장,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사장 등
의 임기가 끝난다. 이 중 생보업계 CEO
들의 연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의 거취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동
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그룹 측 인
사인 린젠룽 부사장이 9월 공동 대표이
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안양수 KDB생명 사장도 지급여력
(RBC)비율 등 자본적정성 악화와 적자
지속 등으로 연임이 위태로운 상황이
다. 반면 최근 그룹 인사에서 승진한 차
남규 한화생명 부회장과 박윤식 한화
손보 사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최종구 “가계부채, 자본규제 강화로 대응” (금융위원장)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국내경
제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자본
규제 강화와 완충자본 적립을 통해 대
응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 거시 건전성을 유지
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숭례문 기자간담
회에서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주택담보대
출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면 은행은 그만
큼 자기자본비율을 늘려야 해 전체적으
로는 대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 위원장은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 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
했다. 거시 건정성 유
지를 위한 가계대출
적립금 도입 방침도
밝혔다. 그는 “가계
신용이 급속히 팽창하면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창
업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
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
처와 협의를 마무리해 이르면 올해 중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최 위원장
은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기업銀,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탈퇴

국내 상용화 어렵다 판단... ‘은행 공동 인증플랫폼’ 집중

기업은행이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CEV에서 탈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
시중은행은 컨소시엄 참여를 연장했지
만 기업은행은 8월 이후 불참하기로 결
정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을 포
함한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
나)은 작년 상반기부터 R3 CEV에 참여
해 왔다. R3 CEV는 글로벌 IT기업들과
은행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컨소시엄

이다. 은행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
하며 연간 회비는 25만 달러(한화 약 3억
원)다.
기업은행이 R3 CEV에 더 이상 참여
하지 않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최승연 기업은행 핀테크
사업부 팀장은 “1년 정도 지켜보니 실질
적인 성과가 미미했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해 국내에서 기술을 상용화하기까
지 비용이나 기간도 많이 든다”고 설명

했다.
기업은행은 대신 현재 은행연합회에
서 추진 중인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16
개 은행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은행
권 공동 인증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을 포함한 6
개 은행은 내년 3월, 나머지 10개 은행은
내년 8월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로나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기장 시간이 줄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희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북)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희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북)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북)

- 수입입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가장 덜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긴 겨울을 보내는 몇 가지 방법

빔 프로젝터로
로맨틱한 겨울 영화 보기

뽕뽕한 스피커로
신나는 캐롤 밤새 듣기

이불 속 노트북으로
미드 시리즈 하나 다 보기

태블릿PC로
못 읽었던 장편소설 읽기

장롱 속 캠코더로
크리스마스 영상 만들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모든, 아니 더 많은 즐거운 일들 속에
반도체가 있다는 사실

어쩌면, 당신의 더 즐거운 겨울을 위해
반도체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SK 하이닉스



한진家 막내딸 조현민 날갯짓 ‘진에어’ 조종간 잡고 飛上할까

출범 때부터 사업 진두지휘
상장이후 기업규모 크게 늘어
趙부사장 경영 전면 등장 촉각
영향력 확대 속 國籍 걸림돌로
국토부도 “대표 선임 결격사유”
3세 승계작업도 차질 빚을 듯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에어 출범 당시부터 실무를 직접 챙기며 경영 일선에서 사업을 진두지휘한 조 부사의 경영 보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 부사장이 한진그룹 오너일가 중 유일하게 진에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언제쯤 등기이사 선임 등 경영 전반에 등장할지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 부사장이 경영 전반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됐던 조 부사장의 ‘미국 국적’ 때문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의 경우 항공산업 보호 및 영공주권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내 진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조현민 ‘진에어’로 재평가 = 진에어는 8일 국내 LCC로는 두 번째로 유가증권에 신고 상장됐다. 진에어는 이번 상장으로 아시아 대표 LCC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이번 진에어 상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

다.

이처럼 진에어가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었던 데는 조 부사장의 역할이 무었보다 컸다. 조 부사장은 회사가 출범했던 2008년 당시 ‘진에어’라는 회사 이름에서 ‘청바지’라는 파격적인 유니폼 선정에, 포인트제도까지 일일이 직접 챙겼다.

이번 상장 과정에서 조 부사장은 기업공개(IPO) 간담회에 직접 등장해 진에어의 기업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조 부사장은 향후 진에어의 비전을 직접 제시하며 진에어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조 부사장은 기업공개 간담회에서 “상장 이후 내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서비스 활성화 등 수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면 수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 부회장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조 부회장의 앞으로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조 부회장이 한진칼 비동기임원, 한진관광 대표 등을 맡는 등 한진그룹에서 요직을 꿰차며 한진그룹 내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며 진에어의 역할 확대에도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진에어 상장으로 한진칼에서 대한항공과 저비용항공사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할 경우 조 부사장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 부사장이 경영 전반에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부사장의 국적 때문이다.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신생 항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외국인의 국내 진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항공산업 보호 및 영공주권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서다.

실제 항공안전법 제 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1항 4조에는 외국인(또는 법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항공기 등록 불가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조 부사장이 진에어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항공법상 외국 국적의 대표이사가 국적 항공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진에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진家’ 3세 승계 구도 영향은 = 2013년 조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선임됐을 당시에도 조 부사장의 국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부사장이 국적 문제로 진에어 수장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경우 한진그룹 3세 승계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올해 초 조 부사장은 오빠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함께 동반 승진에 나서면서 한진그룹의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 사장이 지주사 및 대한항공을 맡고 조 부사장이 LCC사업과 호텔사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조 부사장은 광고와 LCC 쪽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언니인 조원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014년 ‘땡땡 회향’ 사건 이후 발목을 잡히면서 역할이 늘어났다. 이에 조 부 사장은 올해 4월 한진칼의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웍 대표로 선임되는 등 경영 보폭을 더욱 늘리고 있다.

문성영 기자 moon@

最惡 면한 조선 빅3, 내년 기상도 ☁

전반적 침체 분위기 속 고부가 선박으로 반등 노력
中·싱가포르 저가 공세 대응…장기 수주 전략 절실

삼성중공업의 갑작스러운 적자 발표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들어 수주 환경이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선업계는 침체 속에서 각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6일 1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이 목적이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매출액 7조9000억 원, 영업손실 4900억 원을 예상했다. 황어연 조선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은

2017년 수주한 상선에 대해 1100억 원의 총당금을 인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위기 속 반등을 노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8일 고부가가치 선종인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선사인 키클라데스(Kyklades)가 발주한 VLCC 2척 수주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VLCC 수주 및 건조 경험은 현대중공업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현대미포조선은 자회사 비나신의 경영 효율화를 바탕으로 3분기 영업이익률 9.3%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실적 턴어라운드와 주식거래 재개 등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분기, 3분기 영업이익률은 각각 5~6%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빅3’ 중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7일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社)로부터 LNG-FSRU 1척과 LNG운반선 1척을 수주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술력 기반의 LNG선종 중심으로 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중국과 싱가포르 업체라는 평가다. 이들은 부족한 건조 기술을 상쇄하기 위해 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장기 수주 전략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날렵함과 세련미에 감각적인 보디 컬러…

男다른 ‘뉴 QM3’ 女心 저격

르노삼성 ‘소형 SUV’…넉넉한 실내공간 자랑
여성고객에 내·외장 차원 다른 감성 제공 인기

르노삼성자동차의 소형 SUV인 ‘QM3’는 출고 고객 중 여성 고객의 비율이 50%를 넘는다. 7월 QM3의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된 ‘뉴 QM3’의 경우 감각적이면서 세련된 보디 디자인에 섬세하고 실용성 높은 내부까지, 차량 안팎으로 여성을 제대로 저격해 꾸준히 여성 고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뉴 QM3는 이전 QM3 디자인에 날렵함과 세련미를 더했다. 뉴 QM3는 르노삼성이 이전 SM6와 QM6로 선보인 디자인을 적용, C자 모양의 LED 주간주행등과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더해 패밀리를 완성했다. 특히 뉴 QM3의 최고급 트림인 ‘RE 시그니처’에는 동급 최초로 일반적인 선루프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고정형 다이내믹 글라스 루프’가 적용됐다.

아울러 보디 컬러에 아메시스트 블랙, 아타카마 옐로우, 쇼콜라 브라운, 에투알 화이트 등 총 10가지의 과감하

면서도 감각적인 컬러를 적용했다. 루프는 블랙, 아이보리, 옐로우 총 3가지 컬러로, 보디와 루프의 컬러를 조합할 수 있다.

뉴 QM3는 소형 SUV이지만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동급에서 유일하게 ‘리어 슬라이딩 벤치 시트’를 적용했다. 앞쪽으로 최대한 당겼을 때 60:40 비율로 분할돼 최대 455L의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시트를 높힐 경우 트렁크 적재 공간이 최대 1235L까지 확보된다.

특히 대용량 슬라이딩 글로브 박스 ‘매직 드로어’가 적용됐다. 12L의 넉넉한 공간에 화장품, 신발, 카메라, 노트북 등 기존의 수납함에 들어가지 않던 큰 제품들까지 보관할 수 있다. 대시보드 상단의 ‘팝업 트레이’에는 핸드폰, 화장품과 같은 간단한 소품을 보관할 수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뉴 QM3는 르노삼성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차량 내부와 더불어 유려파인 감성을 살린 세련된 보디 디자인으로 꾸준히 여성 고객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다”며 “뉴 QM3는 여성 고객들에게 외장부터 내부까지 차원이 다른 감성의 디자인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料 결제한다

내년 1분기 시행 협의 중…5년간 1655억 자동 소멸

내년부터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해 통신비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거나, 쓸 곳이 변변치 않아 자동소멸되면서 수년간 수천억 원 어치의 포인트가 통신사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마일리지로 통신비 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통신사가 가입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레인보우포인트, KT는 장기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ez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정액제 요금 등을 이용한 후 적립되는 멤버십 서비스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통사들은 피쳐폰 시절부터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 요금제에서 1000원당 5~10원 정도 마일리지를 적립해 고객에게 제공해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이통 3사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협약이 완료되는 대로 전산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면 사용자들의 통신요금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일리지

는 적립한 지 7년이 지나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모두 1655억 원으로 통신사별로는 KT 787억 원, SK 717억 원, LG 151억 원 순으로 많았다. 고객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 3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 현재 남은 마일리지는 이통 3사 전체로 800억 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이용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재권적 권리를 강조하며 정부가 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병근 기자 nova@

“美 ITC ‘합성고무 反덤핑 관세폭탄’ 부당”

법정소송 나선 금호석유화학

“정부가 무역장벽 대책 마련해야”

금호석유화학이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날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미국 정부가 부과한 합성고무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합성 고무의 일종인 ESBR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포스코대우가 44.30%, LG화학과 그 외 기업들이 9.66%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

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에 따라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ITC 판정이 충분한 근거가 없어 합법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ITC에 판정 결과를 재고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맞은 기업들이 마지막 대응 수단으로 미국 정부와의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마찬가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된 포스코대우도 6월 미국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계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고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부

과된 61.0%의 관세에 대해 지난해 CIT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대제철과 넥스틸,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4월 유정용 장관(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CIT에 최종 판결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제소한 상태. 현대중공업도 3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예비 판정의 20배인 61%를 부과받고 즉시 CIT에 제소했다.

이에 정부가 무역 장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도 관세 부과 여부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유통가 **팀파워**

롯데백화점 평창 라이선스팀

론패딩 성공의 原動力은 ‘하나된 열정’

〈Passion Connected·평창동계올림픽 슬로건〉

제2의 평창 론패딩이 탄생할까. 그럴 것 같다. 평창 론패딩의 주역인 롯데백화점 평창 라이선스팀이 평창 스니커즈를 내년 1월부터 판매한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평창 스니커즈’의 사전 예약을 실시한 가운데 일거마치 7일 12시 기준 사전 예약 수량이 초기 준비 수량 5만 족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번 ‘대박’ 조짐이다.

“올림픽은 범국가적 차원의 행사이지요. 국민들이 평창올림픽 공식 스토어와 상품들을 통해 올림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롯데백화점 정동혁 상품본부장)

평창 패딩 붐을 이어갈 평창 스니커즈는 가격 대비 높은 효율과 앞서 흥행을 터뜨린 론패딩의 기대감까지 겹쳐 벌써부터 화제다. 롯데백화점은 초기 준비된 예약 수량을 초과해 신청 수량만큼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00% 소가죽인 이 스니커즈는 론패딩과 마찬가지로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담는다.

롯데백화점의 평창 라이선스팀은 ‘올림픽 공식 기념품’을 기획한다는 책임감으로 뚝돌 문천 전문가들이다. 의류, 잡화, 식품, 리빙 등 각 파트의 전문 경력에 있는 이들로 전열을 갖췄다. 백화점 러시아 법원에서 5년 넘게 근무하며 소치 동계올림

픽 열기를 현장에서 체감한 김재열 팀장이 중심이다. 수석 바이어 4명, 바이어(상품 기획자) 9명 등 총 14명이 의기투합했다. 수석 바이어들의 경우 롯데백화점 바이어 경력 10년의 베테랑들이다.

세계인 대상 공식 기념품 ‘사명감’ 갖고 전국 방방곡곡 발로 뛰며 시장조사 공장 10여곳 직접 찾아가 ‘론패딩’ 협상 “아무도 안 살걸요” 손사래 받기 일쑤

라이선싱 분야는 처음인 탓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오세는 리빙 파트 수석 바이어는 “정말 막막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상황에서 공식 상품을 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끝은 장대했으나 시작은 미약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 30일 라이선스팀을 처음 조직했고, 5월 26일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면서 본격 마케팅을 시작했다.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요즘과 달리 오픈 당시엔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고 한다.

첫 임무는 국내 기념품숍 시장조사였다. 올림

픽 라이선싱에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혔다. 전국 방방곡곡을 살살이 다니면서 명소에 있는 기념품 매장, 유명 캐릭터 상품숍, 공항 및 철도 기념품 스토어 등을 샅샅이.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인형, 머그컵, 텀블러, 티셔츠, 에코백, 파우치 외에도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까지 면밀히 연구했다.

최은경 치프 바이어는 “발바닥에 불나게 돌아다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기념품이기에 책임감이 막중

“IOC 不許可 마스크팩·폰 케이스 등 출시 직전 무산… 역장 무너지는 듯” 론패딩 이어 스니커즈까지 대박 행진 ‘하나된 열정’ 딱 우리팀 얘기 같아

하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상품 디자인도 고민이었다. 고객 대상 디자인 공모전을 여는 것은 물론 유통전문 교수 등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라이선스팀은 “기존의 올림픽 제품보다 세련되고 예쁜 상품을 만들고 싶은 욕



평창동계올림픽의 히트 기념품인 론패딩을 탄생시킨 롯데백화점 평창 라이선스팀이 올림픽 기념상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맨땅에 헤딩 하듯 론패딩의 성공을 이끈 이들은 평창 스니커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심이 컸다”면서 “디자인 면에서도 시안을 거듭 수정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10군데가 넘는 공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론패딩의 생산 단가와 품질을 맞춰냈다는 최은경 치프 바이어는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공장 입장에서)는 올림픽 상품을 만들어 봐야 아무도 안 살 거라며 손사래치기 일쑤였다”고 회상했다.

시행착오도 있었다. 품평회까지 마치고도 제품 출시 직전에 무산된 카테고리도 있다. 올림픽 후원사의 유사 상품군에 묶이는 바람에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판매 불가 방침을 받은 것이다. 마스크팩과 홍삼, 휴대폰 케이스 등이 그것이

다. 당시에는 “역장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고백한 박영준 수석 바이어는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난관을 극복했다고 전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게 바로 평창 론패딩을 비롯한 올림픽 공식 상품이다. 롯데백화점 평창 라이선스팀의 이번 경험은 대한민국 올림픽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평창 라이선스팀 총괄 김재열 팀장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팀원이 1년간 최선을 다했다.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서 연구, 개발, 제작 및 마케팅까지 전 단계에 걸쳐 노력한 만큼 전세계인에게 추억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남기고 싶다”고 다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술 당기는 年末



女心 당긴 소주

주류 소비가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주류업체가 젊은층과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소주 출시에 나서고 있다. 롯데주류는 기존의 ‘순하리 소다’의 디자인을 리뉴얼해 감성을 자극했고 하이트진로는 은은한 풍미의 준 프리미엄급 소주를 선보였다.



롯데주류 ‘순하리 소다’ 감성 자극 디자인 리뉴얼 하이트진로의 ‘참돔 이슬’ 쌀 원료 사용 알코올 16도

롯데주류는 과일 탄산주 ‘순하리 소다’의 디자인을 리뉴얼했다고 밝혔다. 과즙과 깨끗한 끝 맛이 특징인 순하리 소다 특은 음용과 휴대가 간편한 캔 패키지를 적용한 알코올 도수 3도의 저도 과일 탄산주로, 지난해 출시된 이후 꾸준한 판매를 이어왔다. 새롭게 바뀐 순하리 소다 특은 ‘달밤에 즐기는 달콤한 과일 탄산주’라는 콘셉트로 혼술, 흡술 트렌드를 반영했다.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과 은은한 풍미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

해 ‘참나무통 맑은이슬’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참나무통 맑은소주의 재출시 요구에 따라 고가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의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고 대중적인 소주가 지니지 못한 은은한 풍미를 더해 준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는 3년간의 연구 개발과 수차례의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참나무통 맑은이슬은 참나무통에서 3년 이상 숙성한 쌀 발효 증류액을 소주와 혼합해 묵통의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끝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6도로 부담 없이 즐기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과 여성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고대영 기자 kodae0@

결제 편해야, 지갑 열린다

결제 불만족 44% “사이트 바꿔 쇼핑”

유통街 “더 쉽게” 시스템 구축 쟁결을

유통가에 간편결제 바람이 뜨겁다. 업체마다 자체 개발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외부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결제가 불편해 이탈하는 고객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11일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온라인·모바일 결제 시 결제가 불편하면 다른 유형의 채널로 구매처를 바꾸거나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이다.

만 20~54세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는 온·모바일 결제 시 불편함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 다른 사이트로 이동했다.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는 결제 과정 중의 오류(82.3%), 복잡한 결제 과정(6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관련,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모바일 쇼핑 시 ‘편리성’을 이유로 간편결제를 이용했다. 특히 간편결제의 편리성은 쇼핑 빈도와 규모, 온·모바일 쇼핑 비중 증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7.2%는 쇼핑 빈도에서, 55.6%는 쇼핑 규모에서 이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시스템은 온·오프를 가리지 않는다. 편

온·모바일 쇼핑 시, 결제 불편 경험 (단위: %)

결제 시스템이 어렵거나 불편해 다른 방법/채널에서 구매 (PC에서 모바일로 또는 모바일에서 매장방문 등으로)	46.6
결제 시스템이 어렵거나 불편해 다른 쇼핑몰 사이트/앱으로 구매	44.2
결제 시스템이 어렵거나 불편해 해당 상품 구매 자체를 포기	29.8
결제 시스템이 어렵거나 불편해도 구매 채널/방법 혹은 쇼핑몰을 바꾸지 않고 결제	23.0 ※ 복수응답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음	16.6 불편 경험 83.4%

의점 CU는 최근 스마트폰 하나로 상품 스캔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셀프 결제 앱 ‘CU Buy-Sell’을 개발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바코드를 고객이 직접 스캔하고 구매 수량을 결정해 앱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대홈쇼핑은 ‘보이는 ARS’를 도입했다. TV홈쇼핑을 시청하다가 ARS 주문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보이는 ARS’로 연결된다. 모바일 앱을 별도로 실행하지 않아도 ARS 음성을 들으면서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상품명, 사이즈, 주소 등을 터치해 주문할 수 있어 음성 안내를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고, 터치 오류와 주문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더욱 간편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Sulwhasoo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나

설화수 맨 본유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량단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유에센스.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건설 海外수주 ‘절벽’…내년은 더 ‘고민’

지난주까지 247억 달러…작년 이어 300억 달러 ‘비상’
노다지 될 줄 알았던 이란 기대이하, 국제 유가도 불안
내년 국내 주택시장도 시계제로…건설사 먹거리 고민

국내 건설업계가 올 들어 잇따라 대형 해외 수주 낭보를 터뜨렸지만, 내년에는 수주 절벽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300억 달러 수주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지면서 건설사들의 먹거리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총 247억 달러로 작년(242억 달러)보다 2%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중동 지역(106억 달러) 수주액이 가

장 많고, 아시아가 122억 달러로 뒤를 잇는다. 태평양·북미(6억 달러), 유럽(3억 달러), 중남미(3억 달러) 등은 뒷걸음질치고 있고 아프리카는 작년 수준인 7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올 초부터 대어급 사업을 잇따라 따내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작년 수주액(282억 달러)을 넘어서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해외 건설 시장은 노다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던 이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장 관계로 수주가 쉽지 않았고, 수주 회복의 최대 관건인 국제유가도 불안한 움직임이 계속됐다. 전반적으로 발주 물량이 줄어 수주에 애를 먹었지만, 자금 조달 등 눈높이가 높아진 발주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워졌다.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저유가로 중동 국가 재정난을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파이낸싱 계획 등 까다로워진 발주처의 요구 조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논의가 지속되던 프로젝트 결과들은 보통 4분기에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이 같은 기대감을 갖기 어려워 지난해에 못 미치는 수주액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해외수주 부진에 내년 해외

공사 수주 목표 수립에 돌입한 업계는 어려움에 빠졌다. 그나마 올해는 국내 주택 시장에 집중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렸지만, 내년은 각종 규제 여파에 국내 주택사업까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돌파구를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 때문이다. 업계는 올해 겨자 먹기 식으로 내년도 해외 수주 목표액을 올해보다 높게 잡고 있지만, 이 같은 목표를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 사업은 올해보다 더 암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며 “내년 국내 주택 시장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해외로 눈을 돌리며 목표액을 높게 잡는 분위기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제주 2공항 타당성 재조사에 얼어붙은 주변 부동산 시장 건설 무산? 지역민은 “혹시” 중개업자는 “설마”

정부가 2025년까지 완성하기로 계획했던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 타당성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공항 신설 호재로 땅값이 올랐던 성산읍 주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신설이 타당성 재조사로 불확실해지면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인근 구좌읍, 표선읍 등 부동산 시장은 매수·매도 문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전

해졌다.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 한계로 성산읍에 2025년까지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이를 거세게 반대했다. 정부는 이들이 기존 타당성 조사의 문제로 지목한 안개일수 통계 오류와 자연 훼손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재조사를 나선다.

이에 제2공항 호재 지역인 성산읍, 구

좌읍, 표선읍 등의 부동산 시장은 숨죽이는 형국이다. 성산읍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전부터 유력한 호보지로 떠올라 땅값이 이미 두세 배 올라간 상태였다. 하지만 동시에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제한됐다. 때문에 인근 구좌읍, 표선읍 등이 땅값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구좌읍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제주

제2공항 발표로 구좌읍과 표선읍은 노른자 땅이 10배까지 오르고 평균은 3~4배 정도 올랐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생기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역민은 제2공항 무산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개업소 대표들은 제주공항 포화 상태가 워낙 심각하고 제2공항 신설 외 대안이 없어 무산될 리 없다고 전망했다. 표선읍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제2공항의 필요성이 너무 명확해 그릴 리 없다고 손님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주목! 이곳

대림산업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강남권 처음이자 마지막 뉴타운” 3.3㎡당 평균 분양가 2380만원 평형별로 주변보다 1억가량 낮아

“거여·마천 뉴타운이 강남의 처음이자 마지막 뉴타운 분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의 첫 분양 단지가 되는 거죠.” 분양 현장 관계자의 말이다.

대림산업은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 2·2구역을 재건축해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3층, 12개동, 1199가구이며 이 중 38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형은 59~113㎡로 △59㎡ 60가구 △84㎡ 230가구 △113㎡ 90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뉴타운 첫 아파트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다. 그간 강남권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으로 평가됐던 거여·마천동에 위치한 거여·마천 뉴타운은 2005년 12월 뉴타운으로 지정됐는데, 현재까지 강남권에서 유일한 뉴타운이

다. 일반적으로 뉴타운에서 첫 분양되는 단지는 이후 분양되는 단지보다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인근에 비해 저렴한 2380만 원으로 책정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인근의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는 아파트의 시세는 전용 59㎡ 기준으로 ‘래미안 파크팰리스’가 에 7억5000만 원, ‘위례자연엔트리’가 7억5000만 원으로 7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송파 파크센트럴’의 전용 59㎡ 분양가는 5억9240만~6억3720만 원으로 인근 시세에 비해 1억 원가량 저렴하다. 전용 84㎡의 경우도 인근의 8억5000만 원 안팎인 단지들에 비해 7억5000만~8억 원대로 책정됐다.



대림산업이 8일 강남구 언주로 812에서 문을 연 ‘e편한세상 송파센트럴’ 견본주택을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김정용 기자 cogito@

과거 거여·마천동은 이른바 ‘거마대학생’이라고 불리는 불법 다단계 업체 소속 청년들의 주요 활동지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지만, 견본주택 방문객들은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송파구에 산다는 40대 A 씨는 “거마대학생 말은 익히 듣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주 보이지 않는 분위기인 데다 단지에 사는 데 있어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공동체 주민들 의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약은 12일 특별공급을 진행하고, 13일 1순위 당해, 14일 1순위 기타지역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용 기자 cogito@

서울·대전·세종 빼곤… 분양景氣도 兩極化

주택산업연구원 발표 실사지수
80선 넘는 지역 ‘서울이 유일’
대부분 지자체 50~60대 그쳐
전망도 서울·경기·부산·세종順

이달의 서울과 대전,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분양 시장 경기가 대부분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분양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안연)은 분양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분양경기실사지수(이하 HSSI)’를 7일 발표했다. HSSI

는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에 있는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지수 △지역별 지수 △사업자 규모별 지수 △예상 분양률로 구성해 매월 이달의 실적과 다음 달의 전망을 동시에 조사한다.

이달 전국 분양경기 전망은 67.3으로 전월비 4.7p(↓) 소폭 하락했다. 하락폭이 크지 않아 분양경기는 지난달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HSSI 전망치가 80선을 넘는 지역은 84.8을 기록한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했다. 이 밖에 70선을 보이는 지역은 광주(77.4), 제주

(75.0), 대전(73.5), 세종(71.9) 등이 있었다.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50~60대 전망치를 기록해 분양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지방 중에서도 충청과 경상권의 전망이 특히 나빴다. 충북은 55.2, 충남은 60.0의 전망치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당진시 2곳이 15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충청권 지역의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증가했다. 경남과 경북은 지난 달에 비해 전망치가 각각 27.0, 15.4가 하락하며 전망이 어두워졌다. 특히 경북 지역 12월 HSSI 전망치는 53.6으로 매우

낮아 분양사업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사들이 향후 1년간 분양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한 지역은 서울(28.1%), 경기(18.0%), 부산(14.5%), 세종(10.5%) 순으로 나타나 인기 있는 지역에 분양사업의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지역의 분양사업 전망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 밖에 기업 규모별 HSSI는 중견업체가 69.5, 대형업체가 65.6으로 나타났다. 중견업체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형업체에 비해 좋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81.8)과 강원권(72.7), 광주·전라권(73.5), 제주권(73.3)에서의 분양경기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용 기자 cogito@

내년 서울 집값이 12% 오른다고?

최영진의 현안진단

최근 정부 정책 모두 惡材인데
일부 증권사, 높은 상승률 전망
하지만 제시 수치 근거는 약해
적정 수준의 안정이 가장 바람직

“내년에도 주택가격은 계속 오른다.” 주택 관련 연구소와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연이어 내놓았고 공급과잉·금리문제와 같은 악재가 겹쳐 있는 분위기에서는 선뜻 공급이 가지 않을 분석이다.

여러 변수를 감안하면 집값이 오르는거녕 오히려 떨어지는 쪽에 무게가 실려야 정상이다. 정부가 주요 억제제 위해 청약제도 개선·분양권 전면 기준 강화를 비롯해 세급압박 카드까지 꺼내들고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 기류를 탈 것이라고 하니 그 진단 근거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다.

게다가 내년엔 아파트 입주 대가물량이 40만 가구가 넘는 처지여서 주택시장 분위기는 좋을 수가 없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도 기존 주택시장 입장에서와는 완전히 분명하다. 연간 20만 가구씩 5년간 100만 가구나 되는 값싼 무주택서민용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일반 주택 구매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주택 관련 연구기관과 증권사들은 내년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 유진투자증권 이상우 연구원은 전국 주택 가격 상승폭을 5%, 서울은 12%로 예상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 주택 증가로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배경이다.

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위원은 내년 전국 집값이 3%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은 5% 넘게 오르고 지방 오피스텔은 1% 안팎으로 진단했다. 근거로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돼 서울 강남 등에서 ‘뿔뿔한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서울은 공급 부족을 집값 상승근거로 들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서울 1%대를 비롯해 수도권 0.8%, 지방 -0.5% 등 전국적으로 평균 0.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전망치는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

올해 11월까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4%이고 서울은 3%이다. 지난해는 전국 0.7%, 서울 2.1%였다.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내년의 주택시장 전망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진단한 높은 상승폭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나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은 내년 전국 집값 상승률을 각각 3%, 5%라고 점쳤는데 그런대로 호황세였던 올해도 11월까지 통계지만 상승률이 1.4%에 불과하다. 서울도 그렇다. 두 증권사는 각각 5%, 12%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서울 상승폭 12%는 무엇을 토대로 도출해 낸 수치인지 알 수 없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를 봐도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내년 주택시장이 이들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도 안 되겠지만 잇따른 정부 억제책 때문에 거래절벽 사태가 벌어져도 문제다. 적정 수준의 상승세로 안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대기자 choibak14@

금주의 분양캘린더

이달 둘째 주 전국에서 6127가구가 공급된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수도권에서는 거여·마천 뉴타운의 첫 분양 아파트인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을 비롯해 총 2581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방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e편한세상동래온천’, 세종시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 등 3546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세종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 = 한화건설, 모아종합건설, 신동아건설의 컨소시엄은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권에 ‘세종리더스포레’를 분양한다. 인근에 나성초등학교, 나성중학교가 9월 개교 예정이며 중심상업지구 어반아트리움과 백화점 입점도 계획돼 있다. 금강,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이 가까이 있다. 청약은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한다.

날짜	구분	시도	시군구	유명동	아파트명
12/11(월)	접수	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송정B3(공공임대) 2순위
12/12(화)	접수	울산	울주군	웅촌면	울산지안스리가 1순위
		경북	안동시	송현동	안동송현양우내안에 1순위
		서울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1순위 (당해지역)
		경기	시흥시	대야동	대야역두산위브더피크 1순위
12/13(수)	접수	부산	동래구	온천동	e편한세상동래온천 1순위 (당해지역)
		울산	울주군	웅촌면	울산지안스리가 2순위
		경남	밀양시	내이동	밀양1노시티한신더휴 1순위
		경북	안동시	송현동	안동송현양우내안에 2순위
		울산	울주군	삼남면	KTX울산역내왕아너스파스티안
	오픈	세종시		나성동	세종한신더휴리브(HO1)
			나성동	세종한신더휴리브(HO2)	
12/14(목)	접수	서울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1순위 (기타지역)
		경기	시흥시	대야동	대야역두산위브더피크 2순위
		부산	동래구	온천동	e편한세상동래온천 1순위 (기타지역)
		경남	밀양시	내이동	밀양1노시티한신더휴 2순위
		전북	군산시	조촌동	e편한세상디오전시티2차 1순위
	오픈	세종시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나빛재미울단지) 1순위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나빛재미울2단지) 1순위	
		서울	구로구	항동	서울항동지구남퍼스트빌(BBL)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에코자이브
		경기	시흥시	장곡동	시흥장현호반베르디움(B8)
	오픈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온경신도시IPARK
		대구	북구	연경동	연경지구동화아이워시
		대전	동구	용운동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
		울산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호반베르디움(BB-1)
		울산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호반베르디움(BB-2)
12/15(금)	접수	울산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호반베르디움(BB-2)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양우내안오션스카이
		경남	창원시	동읍	동창원서호스타일스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34BL)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35BL)
	접수	세종시		어진동	세종1·5생활권중흥S-클래스엔터프라이즈
		서울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2순위
		부산	동래구	온천동	e편한세상동래온천 2순위
		전북	군산시	조촌동	e편한세상디오전시티2차 2순위
		세종시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나빛재미울1단지) 2순위
			나성동	세종리더스포레(나빛재미울2단지) 2순위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당신에게도
바라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2017년 12월 8일(금) ~ 2018년 1월 12일(금)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 go.hycu.ac.kr | 문의전화 : 02)2290-0082



인문사회 계열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아동학과,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시설경영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디자인 계열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뉴미디어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공)

美 내년 금리인상 속도 더 빨라진다

매파 득세하는 2018 연준

12~13일 을 세번째 인상 전망
비둘기파 교체 땀 공격적 긴축
실업률·물가상승률도 힘 실어
“새해엔 더 자주 금리 올릴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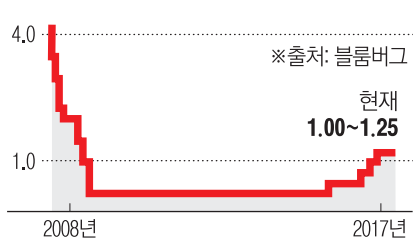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연준이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
하는 것은 내년에 금리인상이 올해보다
더 자주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
가 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영국 파
이낸셜타임스(FT)가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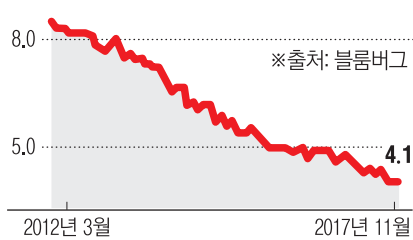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
이 미국 경제성장 전망을 개선해 연준
이 더욱 금리 인상에 과감해질 것이라
는 관측이다. 여기에 내년 연준 FOMC
위원들의 면면이 크게 바뀌면서 매파
성향 위원들이 대거 임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준은 12~13일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
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이자 내년 2월 퇴임하는

미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미국 실업률 추이 (단위: %)



제니 엘런 현 의장의 마지막 큰 움직임
이 될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 상·하원이 트럼프 감세안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연준은 감세가
미국 경제성장 전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리건대의
연준 전문가인 팀 듀이는 “경제가 매우
좋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시장의
호황과 감세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새
해에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여당인 공화당의 감
세안이 경제를 완만하게 성장시킬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감세
안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내년과
2019년 각각 0.3%포인트씩 기여할 것

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 단계를 넘어서고 글로벌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며 물가상승률도 일시
적으로 확고하게 높아질 조짐을 보이면
감세에 따른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금
리 인상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
하게 된다.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펠로리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번 FOMC에
서 공개하는 경제 전망은 9월 당시보다
실업률 예상치가 낮아지고 GDP 성장을
전망도 비교적 확고할 것으로 예상된
다”며 “두 지표에 대한 전망이 상향 수
정되면 금리 정상화가 좀 더 빠르게 진
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지지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17
년 만에 최저치인 전월과 같았다. 같은
기간 비농업 고용은 22만8000명 증가해
실업률을 더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수준
이었다. 연준은 9월 경제전망 당시 내년
에 올해처럼 3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
으로 내다봤지만 이 같은 전망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제롬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연설에서 올해와 내년 미국 GDP 성장
률이 각각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는 9월 연준 경제전망 당시 위
원들의 평균 예상치인 올해 2.4%, 내년
2.1%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내년 연준에
서 벌어질 대규모 인사 교체다. 파월은

엘런과 같은 통화정책 기조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이기 때문에 그나마 예
측 가능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매파 성향 인
사들로 연준 이사회의 빈 자리를 채우
고 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뽑은 연준
인사인 랜들 웰스 금융감독 담당 부의
장과 현재 상원 인준만 남겨놓고 있는
마빈 굿프렌드 차기 연준 이사 모두 ‘매
파’로 꼽히고 있다. 캔자스 주 은행위원
회 위원장인 미셸 보우먼이 연준 이사
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의 성향이 어떻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모하메드 엘 에
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이 올해
사임한 스텐리 피셔 부의장의 뒤를 이
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그나
마 엘 에리언이 파월과 비슷한 ‘비둘기
파’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FOMC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
사들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는 상시 투표권을 갖지만 나머지는 다
른 지역 연은 총재들이 4명씩 돌아가면
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현재 FOMC 투
표권을 가진 연은 총재 중 3명이 비둘기
파 성향으로 평가되는데 이들이 내년엔
은 모두 매파나 중도파로 교체될 예정
이다. 또 그동안 연준 정책 노선을 비교
적 충실히 따랐던 윌리엄 더틀리 뉴욕
연은 총재는 내년 중반께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여서 그의 뒤를 어떤 성향
의 인사가 채울지 불확실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일본, EU와 사상 최대 FTA 미국發 보호주의 확산에 제동

‘EPA’ 2019년 발효

일본산 車 ‘관세 완전 폐지’ 등
세계 GDP 30% 빅마켓 형성
브렉시트와 비슷한 시기 시작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
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8일
(현지시간)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은
미국발(發) 세계적 보호주의 흐름에 반
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뉴욕
타임스(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8일 EPA
최종안에 합의하고 2019년부터 발효하
기로 했다. EPA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약 30%, 무역 총액의 약 40%
를 차지하는 등 거대 시장이 될 전망이
다. EU와의 EPA는 일본이 체결한 FTA
중 최대 규모다. EU와 일본의 경제 규
모는 20조 달러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과 비슷하다. EPA가 발효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 업계, 유럽에서는 낙
농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현재 10%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
로 완전히 폐지된다. EU산 치즈 등 식품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일본 측이 약 94%,
EU 측이 약 99%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협정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일
본과 EU의 EPA 협상 타결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1단
계 협상이 타결됐다. EPA는 영국이 유
럽 탈퇴 날짜로 정한 2019년 3월과 비슷
한 시기에 발효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협정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중
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과 EU가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 자유무역

일본-EU EPA와 TPP 비교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참가국 수

일본-EU EPA(29)		TPP 11(11)
일본, EU 회원국	참가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호주 등
28.4%	GDP	12.9%
36.8%	무역액	14.9%
8.6%	인구	6.9%
이번 협상 타결, 2019년 발효 목표	현황	11월 큰 합의, 2019년 발효 목표

의 깃발을 높이 흔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EU의 EPA 타결은 일본이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
시지이기도 하다. 일본은 2013년 6월부
터 EU와 EPA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에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무역 거
래량이 적은 국가다. 올해 1월 트럼프 대
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은 EU와의 협상
을 멈추고 TPP 퇴살기에 나섰다. 지난
달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 TPP 참가국과 큰
틀에 합의했다. 이후 EU와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 타결에 이르렀다.

니혼게이조이신문은 일본과 EU는 협
정 타결을 통해 10일부터 아르헨티나에
서 시작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이 유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EPA의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추측된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주
요 수혜 산업으로 꼽히지만 일본 자동
차 회사들은 이미 유럽에서 수입 관세
가 적용되지 않는 제조 공장을 갖고 있
기 때문. 엔젤 탈라베라 옥스퍼드대 경
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유로존 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기 때
문에 유로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없을 것”이라며 “이 협정이 게임체인
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주혜 기자 winjh@

축배 드는 ‘넛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2017년 노벨상 시상식에서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리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수상 소감과 함께 건배를 제안하고 있다. 앞서 스웨덴 왕립 과학원은 세일리 교수가 심리학과 경제학을 통합한 개척자로서 새로운 경제학의 지평을 열었다며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스톡홀름/AP연합뉴스

작전株처럼 사고판다…美 제약사, 비타민 값 800% 폭리 전략

〈에이번데일〉

미국 에이번데일제약이 주식시장의
작전세력들처럼 특정 약품을 다른 제
약사로부터 사들이고 나서 약값을 띄
워 폭리를 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제약업체들이 세계 최대 규모 헬
스케어 시장인 미국의 시장 질서를 교
란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
조되고 있다.

에이번데일은 지난달 비타민 약품
가격을 무려 809%나 올렸다고 10일(현
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문제의 약품은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아신(Niacin)의 처방전 버전
‘니아코(Niacor)’다. 니아코는 원래 100
정 들어 한 병 가격이 32.46달러였지만
처방전이 없는 일반의약품(Over-the-
counter Drug) 형태로는 5달러 미만

약값 통제 안하는 미국 시장
의사 선호하는 약품 권리 매입
가격 인상 후에도 공표 안 해
처방피해속출·2500% 폭리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이번데일
은 가격을 295달러로 올려 엄청난 폭
리를 취했다. 의사들이 고(高)콜레스
테롤 치료를 위해 같은 니아코라도 미
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처방전 버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
용한 것이다.

시장정보업체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니아코 처방전은 약 1

만9000장 발행했다. 처방전으로 받을
수 있는 니아코는 일반의약품보다 혈관
에서 흡수가 훨씬 빠르다. 에이번데일
이 가격 인상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의사 대부분이 니아코 가격이 폭등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FT는 전했다.

에이번데일은 이른바 ‘Buy-and-
raise’ 전략을 구사해 약값을 띄웠다.
이는 2년 전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
던 다라프림의 특허권을 인수하고 나
서 약값을 무려 55배 인상해 제약업
체의 폭리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
던 마틴 슈크렐리 튜링 전 최고경영자
(CEO)가 악용했던 전략이다. 약품 비
용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미국시장
의 허점을 파고들고자 경쟁이 거의 없
는 제품에 대한 권한을 인수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에이번데일은 일
본 사와이제약 자회사인 업셔스미스
(Upsher Smith)로부터 올해 해당 비타
민에 대한 판매권을 인수했으나 이 사
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나서 지난달
가격을 전격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에
이번데일은 8월에 설립된 회사로, 오직
업셔스미스의 약품 2종을 인수하는 것
이 목적이었다고 FT는 강조했다.

니아코 이외 에이번데일이 사들인
약품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인 SSKI다.
FDA 기록에 따르면 에이번데일은 니
아코와 SSKI 이외 다른 약을 전혀 생산
하지 않는다. FT에 따르면 에이번데일
은 SSKI도 가격을 종전의 30배 한 병당
11.48달러에서 295달러로, 무려 2469%
인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명사들의 스케줄 관리 습관

“1년 전에 계획 세우고 충실히 지켜라”

리처드 브랜스 버진 회장
“꿈꾸기 위한 시간을 정해라”

제프 와이너 링크트인 CEO
“휴식은 날 위한 최고의 투자”

헤이아비치 CEO는 미셸 여사와 마잔
가지로 자녀들의 학교 행사가 빠지지 않
고 참석한 비결을 1년 전에 미리 일정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
정 관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조언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 영국
의 괴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스 버진
그룹 회장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
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
이 생각하고 느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꿈을 꾸기 위한 시간을 정해
야 한다”고 밝혔다. 브랜스 회장은 회의
일정을 정하듯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
한다. 그는 “한 시간이나 하루 또는 휴가
등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을 계획함으로
써 더 큰 그림을 훨씬 쉽게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제프 와이너 링크트인 CEO는 매일
일정에 30~90분의 쉬는 시간을 포함시
킨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습관임을 발견했
다. 와이너 CEO는 “처음에는 휴식이 사
치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러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
다”면서 “내 일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
수”라고 말했다. 그는 “휴식은 최고의
투자이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산성
도구”라고 강조했다.

CNBC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업무
일정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서도 일정을 관리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소비자 신뢰 확보, 생명보험의 최우선 가치”

신용길 생보 협회장 취임

신임 신용길(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업계의 산적한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와 행동의 틀을 깨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제34대 회장 취임식에서 새 회계기준 도입, 4차 산업혁명 등 생명보험 업계가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업계와 협회가 추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생명보험 산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총 자산 규모 82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연간 수입보험료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 산업은 꾸준한

재무건전성 선제적 대응 제시 낡은 사고와 행동의 틀 깨야 불합리한 관행 과감히 혁파

성장을 통해 금융산업 내의 위상을 공고히 했고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들의 생활 속 깊숙이 뿌리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재무건전성 규제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 생보산업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업계에 대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생보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신 회장은 “소비자 신뢰 확보와

소비자 보호는 생명보험의 최우선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 유지, 지급 등 모든 프로세스에서 아직까지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다면 이를 과감히 혁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생명보험협회 임직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신 회장은 “오랜 기간 보험업계에 몸담으면서 지켜본 협회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 책임감을 두루 갖춘 작지만 강한 조직이었다”고 신뢰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협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것 △회원사와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일 것 △낡은 사고와 행동의 틀을 깨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갖추 것 등을 주문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최태원 SK회장 “급변하는 시대엔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필요”

KAIST MBA 과정 졸업예정자 만나… “사회·경제 동시 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 졸업예정자들을 만났다.

1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8일 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MBA 과정 졸업예정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이 지녀야 할 자질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회장은 “거래비용 제로,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동시에 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졌다”며 “급변하는 시대엔 사회적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질과 사명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혁신적 마인드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경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KAIST에서 진행하는 2년 과정의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은 최 회장이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작된 과정이다. 1~3기 졸업생 86%가 창업해 42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이고, 이번에 졸업하는 4기 졸업생들 17명 가운데 16명이 창업을 완료한 상태다.

최 회장은 졸업을 앞둔 이들에게 특기 사항들이 필요로 하지만 사회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분야를 일종의 ‘사회적 고통’이라고 언급한 뒤 “이런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모델이 필요하다”며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사회의 절실한 숙제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중요함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기업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에서 열린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 4기 졸업예정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사회적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SK

는 결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과정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최 회장은

“사회적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확장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사회적 기업에 투입시킬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LG 청소로봇 ‘우수디자인’ 대통령상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첫 선을 보인 상업용 로봇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LG 전자의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로봇 제품군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창호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은 11일 LG전자가 선보인 청소로봇(사진)이 국내 최고 권위 디자인상인 ‘우수디자인(Good Design Selection)’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봇이 ‘우수디자인’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은 업계에서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크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비스 중인 LG 청소로봇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우수디자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



다. LG 전자는 지난해 ‘LG 시그니처(LG SIGNATURE) 올레드 TV’로 대통령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하게 됐다. 앞서 LG 공방 청소로봇은 8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IDEA (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2017’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방 청소로봇은 청소가 필요한 구역의 지도를 데이터베이스에 담아 복잡하고 넓은 공방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스스로 찾아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광호 기자 khlee@

롯데백화점, ‘2017 한국윤리경영대상’

롯데백화점(강희태 대표·사진)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17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의지가 강하고,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윤리경영대상’은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매년 국내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비영리조직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롯데백화점은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한 ‘정도(正道)경영’ 실천을 목표로 삼고,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롯데백



화점은 올해 윤리경영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임직원 윤리역량 강화 △비윤리 예방 및 개선 윤리적 기업 이미지 제고 △비효율 업무 개선 등

4대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운영해왔다. 롯데백화점은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 내에서는 롯데백화점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윤리상담센터 및 윤리 핫라인(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 핫라인을 통해서 는 누구나 직원의 비윤리적 행동을 제보할 수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고교생 최혜진, 프로데뷔 첫 우승

KLPGA투어 2018 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 10언더파 206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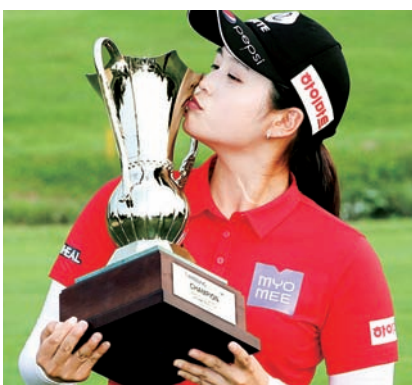
“기다리던 첫 우승이 이렇게 빨리 나와서 기분이 좋다. 이번 대회는 그냥 톱 10 안에 들자는 생각으로 플레이했는데 기대보다 잘됐다.”

‘슈퍼루키’ 최혜진(18·롯데·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018 시즌 개막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정상에 올랐다.

최혜진은 10일 베트남 호찌민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6456야드)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 with SBS(총상금 7억 원) 최종일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쳐 박철(21·삼일제약) 등 공동 2위그룹을 2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이날 그는 5타 뒤진 공동 4위로 출발해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그는 국가대표 시절인 6월 조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8월 보그너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했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했다. 8월 만 18세가 되면서 한화클래식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러 5위에 올랐고, 11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했다.

전반에 버디 2개, 보기 1개로 1타를 줄



인 최혜진은 후반 들어 샷 감각이 살아나면서 버디를 3개 더 뽑아내며 역전승으로 이끌었다.

부산학산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최혜진은 수시합격으로 2018년 고려대 국제스포츠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다.

“2017년을 잘 마무리했는데 만족하지 않고 내년을 위해 더 열심히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은 시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1년 풀 시즌을 치르게 될 이번 루키 시즌이 기대된다. 내 스타일 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버디 7개를 잡아내며 신바람을 일으켰던 포코는 4타차 선두로 출발했으나 4타를 잃어 합계 7언더파 209타를 쳐 공동 6위로 밀려나 ‘우승한 뒤 KLPGA투어에서 뛴겠다’는 꿈은 무산됐다.

안성현 골프대기자 golfahn58@

윌러 폴크스바겐 CEO “디젤 보조금 폐지”

“그 돈을 친환경 기술에 써야”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의 마티아스 윌러 최고경영자(CEO)가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러 CEO는 10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브라트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디젤 보조금의 근거와 목적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돈은 보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위해 현명하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 CEO가 정부의 디젤차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디젤 연료에 대해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디젤 자동차가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켜 휘발유보다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론을 근거로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된 자동



차의 절반 이상이 디젤차였고, 경제적으로도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포장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영국 정부의 연구 결과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의 디젤차가 유발하는 오염이 광고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폴크스바겐은 2015년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다. NYT는 디젤은 이제 물락을 가속화할 단계라면서 윌러 CEO의 발언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런던 등지에서는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윌러 CEO는 디젤 보조금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사석에서도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조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삼성SDI ‘사랑의 김장나눔’



삼성SDI가 전국 사업장에서 66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랑의 김장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을 진행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SDI

인사

◆교육부 △대변인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정민 △총청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주명현 △부산대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황성환

◆외교부 (총장) △주뉴욕 박효성 △주니가타 정미애 △주로스앤젤레스 김완중 △주밀라노 유혜란 △주보스턴 김용현 △주샌프란시스코 박준용 △주시애틀 이형중 △주애틀랜타 김준중 △주토론토 정대인 △주후쿠오카 손종식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화영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남상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정태화

◆SK하이닉스 (연구위원 선임) △컴퓨터 코어 디자인 담당 연구위원 김동균 △메이저 공정 연구위원 김용진 △D램 개발디바이스 담당 연구위원 유민수 △낸드AR 담당 연구위원 이남재 △D램 AR 담당 연구위원 정수욱

◆한화갤러리아 (승진) △상무 박용범 △상무보 김태원 박주범 배준연 △전문위원 이정수

◆한화건설 △부사장 김효진 △상무 김만겸 이남철 △상무보 김창성 박철광 석종선 여성진 유진상 이춘근 △전문위원(상무보) 한성제

◆삼양그룹 △삼양홀딩스 (보직변경) △MSC 경영지원실장 신도현 상무 △삼양사 (승진) △상해EP법인장 조덕희 △형가리EP법인장 유태승 △식품연구소

장 박종진 △식자재유통BU장 최형락 △식자재유통BU 유통총괄 이문규 △글로벌신성장총괄 겸 동경지점장 서정배 △마케팅총괄 정지서 △경영기획총괄 서정권 (보직 변경) △스페셜티 케미칼총괄 임승택 △K-프로젝트총괄 이진웅 △삼남석유화학 △대표 채승우 △여수공정장 이오식 △관리총괄 이철주 △삼양화성 (승진) △대표 김광열 △부공정장 채명열 △삼양화인테크놀로지 (보직변경) △대표 조성호 △삼양바이오팜 (승진) △의약사업총괄 이용진 △삼양 패키징 (승진) △생산총괄 주병권

◆TV조선 (부국장 승진) △뉴미디어 사업에디터 정석영 (보임) △국제부장 김동욱 △편집1부장 구분승 △편집2부장 장원준

김수호 현대상선 전무

컨테이너사업총괄 선임

현대상선은 11일부로 기존 미주총괄을 맡고 있던 김수호〈사진〉전무를 본사 컨테이너사업총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주총괄로 임명된 지 1년여 만이다.

신임 김수호 컨테이너사업총괄 전무는 한국 본사의 컨테이너사업총괄을 맡아 전체적으로 컨테이너선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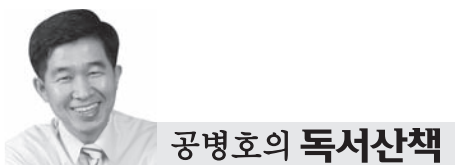
▲김영자씨 별세, 유지창(유진투자증권 회장)·지훈(유지훈치과 원장)씨 모친상, 윤수남(전 국회의장연수원장)·조호진(금강기업 대표)씨 장모상 = 9일, 서울 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2-3010-2263

▲이해선(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씨 부친상, 안병찬(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성수(자영업)·백승대(자영업)·라체문(OB맥주 부장)씨 장인상 = 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40

▲한성배(전 한화관광 일본영업본부장)·문성(일간제주방송 대표)·영희·연희(전 중학교 교사)·경희(서귀포초 교감)씨 모친상, 고성자·박경아(탐라초 교사)씨 시모상, 부영주(제주일보 부사장)·안중학(전 중학교 교감)씨 장모상 = 9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064-742-5000

▲김태관(세기전자 회장)씨 별세, 형준(세기전자 대표이사)·연준(세기전자 부사장)·희연씨 부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010-2631



공병호의 독서산책

엘 라마단 外 3인 '카테고리 킹'

복잡한 세상에서 멋진 개념으로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은 귀하다. 그 핵심을 풀어서 성공 전략과 전술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엘 라마단 외 3인의 '카테고리 킹'이 그런 책이다. 실리콘밸리의 행동가로 활동하던 저자 세 명은 스타트업 컨설팅 회사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들과 친구인 엘 라마단이 협업의 결과물로 내놓은 이 책은 저자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가와 투자자 그리고 개인에게 오늘날과 같은 격랑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네 명의 저자가 발견한 개념이 바로 '카테고리 킹'이며,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카테고리 디자인'이다. '카테고리 킹'은 새로운 카테고리리를 정의하고, 개발하며, 오랫동안

제 상황이 최악일 때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구글은 닷컴 열풍이 붕괴됐던 2000년대 초반에 탄생했고, 에어비앤비는 2008년 금융위기 와중에서, 그리고 버즈아이는 대공황 시대에 등장했다.

카테고리 킹이 다룰 수 있는 핵심 전략은 '카테고리 디자인'을 활용하는 일이다. 카테고리 디자인은 1980년에 등장했던 개별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 디자인'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00년대 초에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등장한 '경험 디자인'도 활용해야 한다. 이들을 모두 조합한 '카테고리 디자인'은 훌륭한 제품, 훌륭한 기업, 훌륭한 카테고리 창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기업과 경영진의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심오한 원

임병화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암호화폐(cryptocurrency) 논란이 뜨겁다. 12월 들어 1코인에 1000달러를 처음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1주일 사이에 1500달러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법정화폐처럼 거래 수단이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도 범정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펀딩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였고,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엔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

또 다른 혁신 이더리움 2.0

만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뒤를 잇고 있는 이더리움의 관심이 높는데 올해에만 40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

사실 이더리움은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다분하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블록 생성 시간과 최대 발행 코인 양이 서로 다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더리움은 단순 화폐의 개념을 넘어 이더(ether)라는 토큰을 사용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나 분산금융 프로그램인 디앱(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의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상세 계약 내용을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고 그 가치에 해당되는 이더를 계약에 귀속시킨 것을 말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자동

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또한 디앱은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 저장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해킹을 하려면 전체 노드의 절반 이상을 변경해야 하므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특징은 화폐나 배당, 거래 참여 등 여러 성격의 토큰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디앱과 결합하여 게임이나 사물인 터넷(IoT), 금융상품 계약, 투표 등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하다. 즉, 오늘날 블록체인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이더리움이 화폐 개념에 충실한 비트코인에서 진보된 형태로 이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주엔 주목할 만한 발표가 있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 '이더리움 2.0'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블록체인상에서 초당 수천 건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인데 지나치게 소모적인 합의 방식인 작업

증명(proof of work) 방식을 고효율의 지분증명(proof of stak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상에 담고 안정성이 확보된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일반인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기록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집이나 자동차 등 유형의 자산에서부터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는 물론 추상적 아이디어 등 무형의 자산도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올려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거래 단위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거래 계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품 또는 금융시장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부테린은 이러한 이더리움 2.0이 향후 3~5년 안에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세상의 核心을 잡아내는 능력

안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카테고리 디자인'은 카테고리 킹이 되기 위한 기업전략으로, 이런 전략은 개인의 커리어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세상의 쏠림현상은 안타깝게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테고리 킹이 특정 카테고리에서 장출하는 수익과 시가총액의 70~80%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5년에 창업한 미국 스타트업 가운데 카테고리 킹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 1년에 1만1500개 기업이 펀딩을 받으면 이 가운데 80개 정도가 성공하고 카테고리 킹의 후보군에 속한 기업은 12개 수준이다.

한 기업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나면 시장은 마치 종려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심하게 쏠린다. 이처럼 고객이 빠져나가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마치 폐가(廢家)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카테고리 킹들이 경

직이다.

이 책은 서론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경제와, 본론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킹 플레이북, 그리고 결론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킹, 전설을 만들다 등 3부로 구성된다. 카테고리 디자인의 출발점은 시장 인사이트와 기술 인사이트를 접목해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발견해내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질문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카테고리의 80%를 점하게 되면 카테고리의 잠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할 수 있는가.

카테고리를 잘 만들려면 경제주체라면 마지막 단계는 플라이휠을 사용해 계속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이다. 무척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네 명의 저자가 머리를 맞대고 쓴 책을 읽을 수 있다. 작가의 유려한 필력이 더해져 읽다 보면 숨이 가빠질 정도로 선동적인 책이다. 시대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성공법을 제시하는 관점은 실용서이다.



방콕과 호떡

세상에는 우연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은어(隱語)'나 '속어(俗語)'는 더더욱 예외지 않은 우연이 계기가 되어 생겨난다. 은어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이고,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유

행어'라는 말이 생겨났다. 사전적 의미의 은어도 속어도 아닌데 어쨌든 사회에 통용되면서 너무나 사용하는 말을 일러 유행어라고 부른다.

발췌 10년도 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일종의 문자 유행인 '방콕'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금년 휴가는 어디로 가나?" "방콕에 나 다녀와야겠어." "그래? 해외로 나가는구나. 좋겠다!" "아냐, 방에 콕 처박혀 지내겠

다는 뜻이야." 방콕, 지금은 참 썰렁한 개그이지만 당시에는 크게 유행한 속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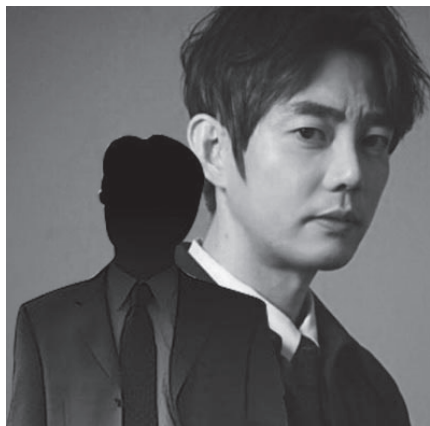
그런데 요즘에는 이 '방콕'이 외부 출입을 꺼려 제 방에만 콕 처박혀 있음으로써 거의 폐인의 지경에 이르는 사람을 칭할 때 사용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방콕보다 더 심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 '호떡'이라고 한다. 왜일까요?

잘 알다시피 호떡은 설탕을 소로 사용하는 중국식 떡으로, 반철이나 프라이팬 위에 놓고 지지면서 한 번씩 뒤집으면서 구워 만든다. 한 번씩 뒤집어주지 않으면 터버려

서 먹을 수가 없다. 폐인처럼 방에만 콕 처박혀 지내는 사람은 주변의 지인들이 가끔 찾아가서 마치 호떡을 한 번씩 뒤집어줌으로써 의식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사람을 '호떡'이라고 칭한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방콕'도 '호떡'도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그들이 밝게 살 수 있도록 이웃이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다. 내 이웃이 밝을 때 나도 밝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저모 데이 소속사 대표 사망, 매니저 이어 두 번째 비보 "그저 안타까울 따름"



가수 데이(사진)의 소속사 대표 염모(35) 씨가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특히 염 씨의 사망 소식은 2009년 매니저 자살에 이은 두 번째 비보로 데이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9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염 씨는 2일 오후 1시께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염 씨의 집을 찾은 지인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염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염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며 생활고를 토로한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외상도 없는 점으로 미뤄 자살로 종결지었다"라고 밝혔다.

염 씨는 2008년 기획사를 설립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벌였다. 이후 2012년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으나 사드 배지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는 2009년에도 매니저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도 심적 고통을 이유로 공백기를 갖고 잠시 활동을 쉬었던 데이는 또다시

힘든 시간을 겪게 됐다.

네티즌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yd22****'는 "연예인은 수천 명인데 그나마 알려진 연예인은 100명 남짓일 뿐. 그 정도로 연예계에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운도 따라줘야 하지. 데이 소속사 대표도 성공을 바라면서 연예계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apku****'는 "매니저에 이어 소속사 대표까지, 잇따른 비보로 데이도 참 힘들 텐데 힘을 냈으면 좋겠다. 절대 약한 생각은 하지 말길"이라며 데이에 위로의 마음을 표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

우리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아이들의 꿈이 잘 자랄 수 있게
현대오피스가 도와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사무기기는 현대오피스**입니다

현대오피스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정에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오피스의 코팅기로 내 아이의 독소리 나는 교육을 시작해보세요!
전제품 안전인증마크 획득으로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플 & 스마트한 탁상용 문서제기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그만!
고지서·명수증을 깔끔하게 세단!

임야표 교구제작의 필수품! 코팅기

빛에 바래거나 물에 젖을 일 없게
중요문서·아이들 교구까지

나만의 책 만들기! 학습용과 UPI 제본기

제안서·연습장·교재제작 등
필요한 내용만 복사!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제품구매처 현대오피스 쇼핑몰 www.hd2.co.kr |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조달청 나라장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공무원연금제휴쇼핑몰, 신세계몰, 1300k, N+마켓, nsmall, d&shop, 현대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아이몰, 네이버 지식쇼핑, 네이버 체크아웃, 네이버 샵N, B2B ZONE, 메누리닷컴, 어비넷, 다나와

데스크칼럼

김 덕 현
수석부국장 겸
기업금융부장

가상화폐 投機,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51만5000원(2016년 1월 1일), 121만 6000원(2017년 1월 1일), 503만5000원(8월 17일), 1012만 원(11월 26일), 2481만 원(12월 8일), 1700만 원(12월 11일).

최근 광풍(狂風)이 부는 비트코인의 2년간 가격 변화다. 올 들어서만 무려 2000%가 폭등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한때 308조 원으로 삼성전자 시총 턱 밑까지 상승했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자 직장인, 학생, 주부, 노인들까지 대화의 주제가 비트코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에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투자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추격 매수에 나선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이상 과열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일본보다 20% 이상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

국내 가상화폐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채굴은 미미하지만, 거래량은 올해 9월 77만 BTC(비트코인)에서 11월 180만 BTC로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90%는 미국, 일본, 중국, 호주에서 채굴됐다. 이 중 중국산이 30~40%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해 9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매도한 후 매각 대금을 빼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장’이 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정부는 올 9월부터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장을 감시해 왔다. 3개월 동안 가상화폐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으로 오르며 투기 조짐을 보이자, 그제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가 문

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등 10여 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이제 규제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 금지 등 규제를 결정했다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활용도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탕주의가 난무한 가상화폐 시장을 그냥 놔 두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한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전산 설비와 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이용자 폭증에 따른 서버 다운과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해외 밀반출이 없도록 자금 거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얼마든지 자금 세탁을 할 수 있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 자금의 출처와 이동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과세(課稅) 문제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차피 정부가 시장 관리를 하려면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고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상화폐를 만든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 정치, 금융, 의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김진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과거 30년이 인터넷 시대였다면, 향후 30년은 블록체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켜만 보지 말고 투기장이 된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dhkim0715@

객석

김 주 원 NH농협금융 팀장·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금융을 따뜻하게 버무리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중 하나가 김장이다. 겨우내 먹을 김치를 준비했다는 안도감과 김장 나누기를 통해 소외받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장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눠 먹는 따뜻한 마음이 잘 담겨 있어서다.

김치 맛은 지역에 따라, 재료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공통된 것이 있다면 바로 ‘버무리기’이다. 버무리기는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념을 잘 버무리야 김치가 제 맛을 낼 수 있다.

금융에도 버무리기는 꼭 필요하다. 비대면거래의 활성화와 AI기술의 상용화로 금융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종이통장이 사라지고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다. 고객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다. 반면, 고객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만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금융이 필요한 이유다.

금융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어우러져 상생하는 것에서 따뜻한 금융은 시작된다. 그러려면 양념(SPICE)을 잘 버무리야 한다. 사회(Society), 협력업체(Partner), 투자자(Investor), 고객(Customer), 직원(Employee)이 바로 금융회사가 버무리야 할 양념들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잘 버무리 금융취약계층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따뜻한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농협금융지주는 매년 강원도 홍천군의 왕대추마을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도 11월 29일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따뜻한 금융이 2017년 겨울을 훈훈하게 데워 주길 기대해 본다.

기자수첩

박 엘 리 정치경제부/ellee@



脫원전 불지핀 ‘낯은 배관’의 진실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에서 원전 책임자가 “원전 내부의 밸브는 3만 개, 배관 길이는 170km라서 40년이 지나면 모든 부식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 대사는 여전 히 기자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허구(虛構)였다. 실제 들여다보면 원전 내부 밸브와 배관 등은 하나하나 시리얼 넘버(식별 고유번호)가 붙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계속 장비가 실시간 감시해 이상이 생기면 신호를 보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노후화한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원전 제로(0)’를 내건 것은 영화 ‘판도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판도라’를 본 후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문 대통령은 포항 지

진 발생 직후 열린 긴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나 석유류·화학제품을 다루는 시설들이 내진 보안을 했다고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것인지, 낯은 배관 구조까지 잘 된 것인지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와 경주·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원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가 됐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의 시작 자체가 잘못된 정보라면 문제가 있다.

원자력의 대안으로 화력발전을 늘리기 어렵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에는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간단치 않다. LNG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 요금이 오르는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시급하다.

송영록의 이슈노트

산업1부 차장



슬기로운 기업생활

요즘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즐겨 본다. 보통 사람들에게겐 생소한 교도소 이야기를 다룬다기에 호기심도 생겼고, 무엇보다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출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가 다시 뭉친 작품이라는 소식에 두말할 것 없이 선택했다.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죄수들이 등장한다. 저마다 다 사연이 있다. 주인공인 프로야구 선수 김제혁은 여동생을 강간하려 했던 성폭행 미수범과 격투 중 범인이 뇌사(腦死) 상태에 빠지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다. 법정에서 주장한 정당방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기업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고박사는 배임·횡령으로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고박사 사연도 딱하다. 위에서 저지른 일을 혼자 뒤집어 썼다. 지방대 출신의 설움을 당하던 고박사는 “수감 기간 가족을 챙겨주고, 출소 후에도 책임진다”는 얘기에 감옥행을 택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존데레’처럼 평소에는 무뚝뚝하지만 속으로 따뜻한 정응인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성동일 캐릭터도 있다. 드라마 속 배경인 사부교도소에 새로 부임은 교도소장은 언론에 좋은 이미지로 비치기만을 바라는 유형이다.

드라마는 ‘인생과 사회의 압축판’이라고 했던가.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흡사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교도소장(정부 및 일부 정치권)은 대중의 인기만을 좇아 재벌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인들을 불러 출세 기회 주고 호통 치는 게 인기를 한 단계 높이는 척도가 된 지 오래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할 사안이 수도룩하다.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되고 고임금 근로자까지 제도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합리적인 요구마저 무시받고 있다.

사실 감옥에 갇힌 기업인들은 힘들 줄 도리가 없다. 교도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제 목소리를 냈다가 돌아오는 건 징벌방이다. 경총은 4.5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이후 사실상 정부의 대화 리스트에서 배제되는 별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소통한다면서 뒤통수를 치는 드라마 속 교도관 같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좌파(左派)권 우파(右派)권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가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분배 정책이 있으면 성장 정책도 있어야 한다. 재벌이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안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 같이 땅을 사지 말라고 해야 하나. 모두 땅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국내 프로야구계를 평정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계약서에 서명했던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김제혁 선수는 법정 구속되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평생 야구만 했던 그는 이렇게 외친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릴 게 했길래 나한테만 이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X갑냐고.”

s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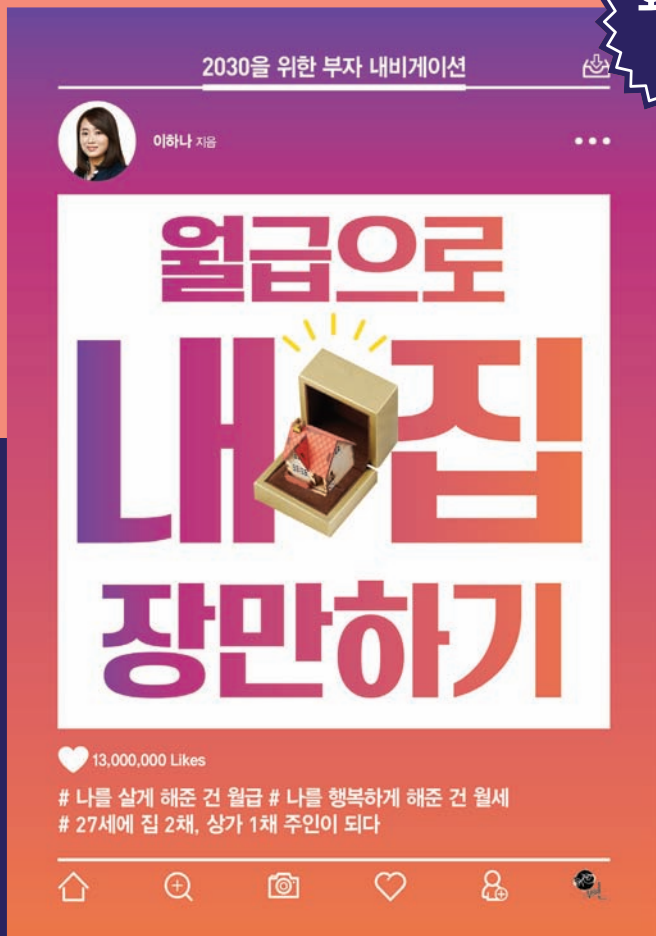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社説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논설실 (02)799-6701 기업금융부 (02)799-2665 자본시장부 (02)799-2664 사건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3 산업1부 (02)799-2648 국제경제부 (02)799-2643	정책사회부 (02)799-2612 산업2부 (02)799-264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www.etoday.co.kr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2030을 위한 부자 내비게이션 ‘월급으로 내 집 장만’이 꿈같은 이야기라고? 아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된다면!

월급으로 내 집 장만하기

- # 27세에 집 2채, 상가 1채 주인이 되다!
- # 나를 살게 해준 건 월급,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월세
- # 월급으로 집을 사는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한 정신무장법,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화제의
신간

이하나 지음 | 284쪽 | 14,000원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공식 통신 파트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5G** 시작

대한민국 여자 최초 루지 국가대표 성은령
트랙조차 없어 아스팔트만 달려야 해도,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처음을 위해서.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열어나가는 그녀처럼
KT가 5G 네트워크로 세계 최초 5G를 시작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세계 최초 5G 시범 네트워크] [세계 최초 5G 시범 단말기 시연 예정]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

써보니

삼성 '파워건'



놀이가 된 청소

흡입력 강한 '무선 청소기'
소파 밑도 편하게 가뿐히

삼성전자가 내놓은 상중심(上中心) 무선청소기 '파워건'의 최대 장점은 청소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청소기는 가사에 뺄음을 수 없는 필수 가전이지만 기자는 유선 청소기를 사용할 때마다 긴 전선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부담감과 기대 이하의 흡입력 때문에 청고에 넣어놓고 잘 꺼내지 않았다. 허리를 펴고 대걸레를 미치는 게 기자의 성격에도 맞았다. 하지만 파워건을 만난 순간 '청소를 하고 싶어서' 이상한(?) 충동이 느껴졌다.

일주일간 파워건을 사용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바로 머리카락 청소다. 매일 머리를 감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린 후 머리카락을 물수건으로 치워내도 이를 정도만 대걸레질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발에 치인다. 청소기를 사용해도 뒤돌아서면 바닥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기자가 청소기를 잘 사용하지 않은 이유다. 파워건 사용 후엔 오히려 머리카락을 찾아나섰다. 파워건에 듀얼 액션 브러시를 장착한 후 한 번만 쓸어내도 거짓말처럼 머리카락이 청소기의 먼지통에 안착한다.

시중에 상중심 청소기가 많이 출시됐지만 타사 제품 대비 파워건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느낀 부분은 각도 조절이 가능한 '플렉스 핸들'이다. 소파 밑을 청소할 때마다 허리를 굽히는 등 더 힘을 주곤 했는데 오른쪽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50도까지 손잡이 각도가 꺾인다. 손목에 무리를 가지지 않고 꼼꼼한 청소가 가능하다.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하면 40분 동안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2개가 제공돼 최대 80분간 청소가 가능하다. 파워건은 150W(와트)로 현재까지 출시된 스틱형 무선청소기 중 가장 강력한 흡입력을 가졌다.

무엇보다 청소기 돌리는 것을 꺼리던 남편의 동심(?)을 자극한 것도 이 제품의 장점이다. 파워건은 배터리 장착을 할 때 총알을 장전할 때와 비슷하게 손잡이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끔 디자인돼 있다. 끝까지 밀어올리는 순간 영화 속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주인공에 빗댄다. 제품명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 배터리를 장착한 청소기를 들고 남편은 신나게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청소를 놀이처럼 만들다니, 제품 설계자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다.

단점을 꼽자면 파워건이 흡입력이 강한 만큼 여성 혼자 청소하기가 벅하다는 점이다. 전원을 켜고 방아쇠 모양 버튼을 당기면 최대 7분 동안 티보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노멀 모드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욕심이 나서 티보 모드로 청소를 지속하다 보니 제품이 무겁게 느껴졌다. 또 냉장과 옆이나 가구 옆에 세워둘 수 있지만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 벽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유아나 반려견이 있는 가정의 경우 거치대를 설치해 제품을 고정해야 안전 사고가 생기지 않지만, 못을 박지 않고 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정유현 기자 yhssoo@

자율주행시대...손 놓는 운전자 관심은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수요 급증
2013년 130억 달러→2025년 468억 달러
OLED시장 새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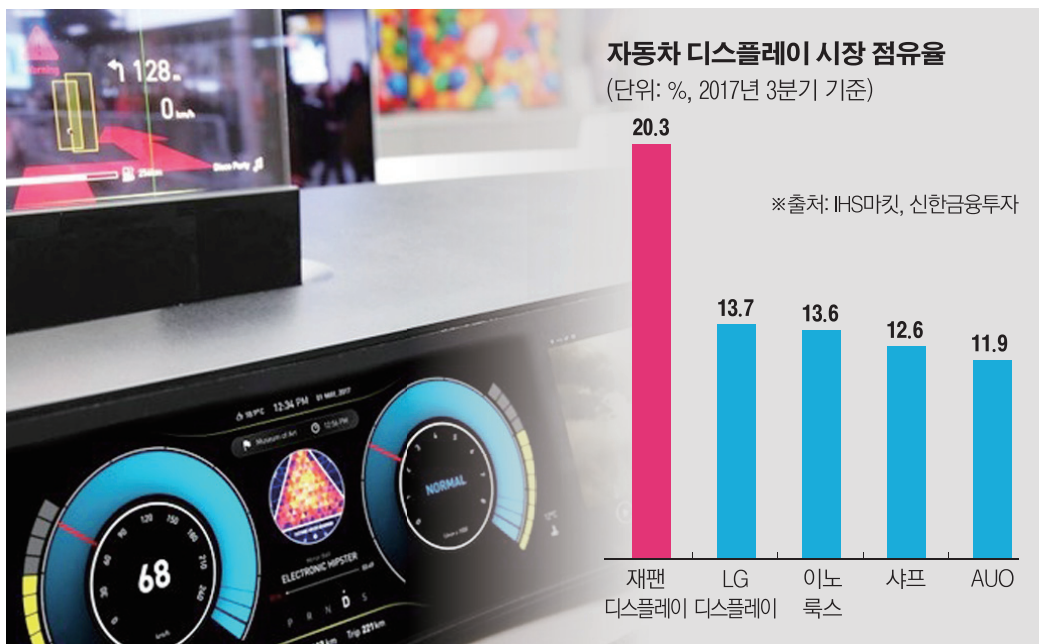
LGD 작년 벤츠 등에 패널 공급 합의
삼성디스플레이도 꾸준히 기술개발

자동차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자율주행차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비산업리서치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비리서치 하반기 결산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사장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중 소형 OLED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부사장은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규모가 2013년 130억 달러에서 2025년 468억 달러로 성장하는데, 이 중 지난해 60억 달러를 기록했던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매년 7%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재팬디스플레이 20.3% △LGD 13.7% △이노룩스 13.6% △샤프 12.6% △AUO 11.9%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는 현재 중앙 정보 처리 장치(CID)와 계기판, 룸미러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실현되면 운전자 시스템(ADAS)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량용 OLED 수요가 개화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는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HUD는 전면 유리에 계기판 정보 및 주행 상태, 간이 네비게이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2021년부터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HUD가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 시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오락거리가 결합한 첨단 기능을 일컫는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될 디스플레이로 OLED를 꼽는다. 완벽한 블랙 표현과 풍부한 색감, 높은 명암비, 넓은 색 재현율을 가진 높은 화질의 OLED는 전통적인 사각형을 벗어나 원형이나 커브드 등 다른 디자인으로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OLED 디스플레이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2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에 차량용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LG디스플레이는 독일 완성차 업체들과 자동차용 실내의 인테리어와 조명용으로 OLED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대 규모의 OLED 조명 생산라인 가동을 공표하고, OLED 조명 브랜드 '루플렉스(Luflex)'를 론칭했다. LG디스플레이는 향후 등기구 업체,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전장업체 등 다양한 고객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대해 업계 대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직 차량용 OLED를 상용화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 개발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시장이 개화되면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차량용 OLED 패널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장 부품 사업을 확대하려는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자동차 전장기업 하반을 인수한 가운데, 하반과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역량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소 부사장은 "자동차에 OLED가 탑재되면 시장은 크게 움직일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은 차별화 포인트로 OLED를 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美 보호주의 무역도 프리미엄으로 뚫는다

LG 시그니처 적용 'V30' 이달말 출시
삼성 88인치 QLED TV 출시 등 주목



전자업계가 잇따라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현재 이 분야 선두 주자인 LG전자는 그동안 세탁기와 얼음정수기냉장고, 올레드TV, 가습공기청정기 등에 적용한 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에 가전 외 품목인 스마트폰을 추가하면서 구석을 넓히고 있다. 이제 질세라

삼성전자는 소형TV 제품군을 줄이고 65인치 이상 QLED TV 판매를 강화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달 말 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계승한 첫 번째 스마트폰 'LG 시그니처 에디션(사진)'을 선보인다. 기존 LG V30 모델의 명품 버전이다. 총 300대 한정으로 생산해 국내에서만 판매할 계획이다. 가격은 20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프리미엄 판매 전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시장점유율 경쟁보다 프리미엄 확대에 주력해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 4분기 매출액은 16조51억 원, 영업이익 426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간으로는 올해 사상 처음 60조 원 매출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업이익은 2조5000억 원에서 2조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원식 신원증권 연구원은 "프리미엄 가전, OLED TV 등을 통해 생활가전 시장 내 LG전자 브랜드 경쟁력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금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도 프리미엄으로 상쇄될 전망이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TC 권고안을 받아들여 한국 기업의 세탁기 수출에 일시적으로 부담이 예상되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면서 "최근 스마트 가전,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세이프가드 결정이 확정되면 한국 가전업체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전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프리미엄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LG전자나 소니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6월 77인치에 이어 8월에는 88인치 QLED TV를 내놓으면서 초대형TV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 2000달러 이상 프리미엄TV 시장 점유율은 3분기 기준으로 △LG전자 34.8% △소니 31.4% △삼성전자 23%다. 이광호 기자 khlee@

노란우산공제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휴양시설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에이온뱅크, K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소차종 겨울철 무상 점검 캠페인

마세라티

SUV ‘르반떼’와 중형 스포츠 세단 ‘기블리’의 고공 행진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이탈리아 레이싱용 자동차와 고급 스포츠카 제조 업체인 마세라티가 겨울철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선보인다.

마세라티는 4일부터 2주 동안 전국 9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17 서비스 윈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윈터 캠페인은 세심한 차량 관리가 요구되는 겨울 시즌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마세라티 전 차종을 대상으로 엔진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브레이크 오일·냉각수·에어필터·타이어·와이퍼·브레이크 패드/디스크·벨트류·배터리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비스센터 사전 예약 후 차량을 입고하면 더욱 신속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캠페인 기간 중 유상 수리 및 액세서리·머천다이즈 구입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방문 고객들에게는 마세라티 팀블러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9개 마세라티 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마세라티는 계절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5월에는 2주간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17 서머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마세라티는 전국 9개 마세라티 서비스센터에서 세심한 차량 관리가 요구되는 여름 시즌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마세라티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엔진오일·트랜스미션 오일·브레이크 오일·냉각수·에어필터·타이어·와이퍼·브레이크 패드/디스크·벨트류·배터리 등 10개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벌였다.

이광호 기자 khlee@

폭설에도 안전... 타이어 15% 할인

FCA코리아

피아트 크라이슬러코리아가 30일까지 지프·크라이슬러·피아트 전 차종을 대상으로 ‘2017 윈터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17 윈터 서비스 캠페인’ 기간에 전국 FCA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와이텍(WiTechTM) 장비를 이용한 겨울철 무상 점검 서비스와 동계 시즌을 대비한 특선 소모품 9종에 대해 20%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대상 품목은 부동액·브레이크 로터 및 패드·브레이크 오일·미션 오일·와이퍼 블레이드·캐빈필터·엔진오일필터·에어클리너필터 등이다.

또한 겨울철 폭설에도 안전 운행을 돕는 겨울용 타이어 및 일반 타이어도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모파(MOPAR) 순정 배터리는 10% 특별 할인되는 등 겨울을 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순정 액세서리와 머천다이즈 컬렉션 등도 20% 특별 할인된다.

‘2017 윈터 서비스 캠페인’ 기간 전국 19개 FCA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는 고객 편의를 위해 이전에 서비스센터 방문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파블로 로소 FCA코리아 사장은 “최근 우리나라 겨울철은 기온이 매우 낮고 기습적인 폭설이 자주 내리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위한 철저한 월동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겨울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과 FCA코리아만의 차별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FCA코리아는 FCA 서비스 스킵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고객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시오 FCA코리아 AS 총괄전무는 “FCA코리아는 앞으로도 품질 향상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QX50’ 50대 한정 프리미엄 패키지

인피니티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가 12월 한 달간 QX50과 뉴 Q50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혜택과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피니티코리아 관계자는 4월 “50대 한정으로 진행되는 SUV QX50의 ‘프리미엄 패키지’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했다. QX50 프리미엄 패키지는 할인과 무이자 할부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된다. 300만 원 할인(차량 적용가 4850만 원) 패키지의 경우 유상 서비스 쿠폰(PPSC-2)·프리미엄 케어가 제공되고 내비게이션이 장착된다. 5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내비게이션 장착과 프리미엄케어 혜택이 제공된다.

페이스북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피니티코리아 관계자는 “5일부터 11일까지 인피니티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에 들어와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당첨자는 14일 인피니티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다.

인피니티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뉴 Q50 센서리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은 36개월 무이자 할부와 10년 20km 배터리 보증 연장·내비게이션 장착 혜택



을 누릴 수 있다.

인피니티코리아는 4주간 겨울철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고객들은 유상 수리비 할인·타이어 할인이 제공·별티포트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캠페인 기간 전국 인피니티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는 머그컵이 제공된다.

한편, 인피니티코리아는 고객들의 서비스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판교 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 인피니티코리아는 12월 말까지 판교 서비스센터에서 인피니티 차량 정비를 받는 모든 고객에게 차량용 고급쿠션을 증정한다.

강승원 인피니티코리아 대표는 “프로모션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인피니티 차량의 우수성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볼락박스는 역시 -

강소라의 플래티넘 블랙박스

세계최초 전/후방 QHD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세계최초 전후방 QHD 플래티넘 블랙박스

Key Features			
QHD 세계 최초 전후방 QHD 화질 완벽 영상 녹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	UNV Ultra Night Vision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선명한 영상 녹화	BSD Blind Spot Detection 후측방 사각 지대를 감지하는 기술	SID Super intelligent Detection 소리까지 잡아내는 지능형 충격 감지 녹화
전후방 QHD 화질 HD화질 보다 4배 더 선명한 초고화질 영상 녹화	저조도 환경에서 주차, 상시 녹화까지 밝고 선명한 영상 기록	후측방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더욱 안전한 차선 변경 정보 제공	G센서의 움직임과 외부의 충격음을 감지한 지능형 감지 녹화 기술 적용

‘잔존가치 60%’ 랜드로버 부담없이 즐기세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잔존가치 보장형 리스 프로그램 ‘랜드로버 개런티 60’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랜드로버 개런티 60’은 선수금 30%, 36개월 계약 기간 기준, 최대 60%의 잔존가치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랜드로버 개런티 60’ 프로그램을 통해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구매할 경우, 선수금 30%를 납부하면 월 납입금 42만400원(TD4 150PS SE모델)으로 3년 뒤 잔존가치 6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디스커버리는 랜드로버의 베스트셀링 모델이자 수입차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경우에는 선수금 30%를 납부하면, 월 납입금 54만2100원(TD4 SE모델)으로 잔존가치 최고 55%를 보장받는다.

계약 기간 무상보증과 함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유지비 부담을 줄였다. 36개월 계약 만기 시 잔금 납부 후 차량 인수, 반납 등을 통한 매각, 남은 잔존가치에 대한 재리스 실행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 12개의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차량을 반납하면 3년마다 신차로 교환해 신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백정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표는 “단순한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넘어서 고객이 랜드로버를 구매하는 순간부터 공식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한 반납과 재구매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드리기 위한 종합 서비스”라며 “이번에 출시한 ‘랜드로버 개런티 60’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규어랜드로버를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폴 체인지 ‘레이’ 와이드 허니콤 패턴 독특함 더해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레이가 6년 만에 확 달라졌다. 기아차는 2011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레이 상품성 개선모델의 렌더링을 6일 공개했다.

신차급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새로운 레이의 기존 젊고 유니크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모던하게 바뀐 외형에 와이드 허니콤 패턴으로 독특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전면부에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의 디자인을 변경했다. 기존 모델의 중앙에 있던 라디에이터 그릴을 헤드램프와 같은 높이로 올리고, 보디와 동일한 컬러로 바뀐 산뜻하고 깔끔한 인상을 부여했다. 단색의 그릴에는 엠블럼을 중심으로 와이드 허니콤(벌집모양) 패턴의 음각 조형을 배치해 레이의 유니크함을 드러냈다.

기존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던 자리에는 가로로 넓은 직사각 형태의 인테이크 그릴을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 배치하고, 새로운 헤드램프에 가로 직선이 뚜렷하게 드러난 DRL(주간주행등)을 적용해 전폭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 또한 프론트 범퍼 양끝단에 위치한 포그램프를 새로 배치해 전면부에 변화를 주며 시선을 유도했다. 후면부는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면서도 전면부의 디자인 요소들을 동일하게 활용해 앞모습과 뒷모습의 일체감을



을 부여했다.

새로운 리어램프는 기존의 세로형에서 C자 형태의 가로형으로 바뀌고, 테일게이트 가니시와 연결돼 하나의 긴 바 형태로 후면부의 안정감을 가져왔다.

한편 전면부에 적용한 와이드 허니콤 패턴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테일게이트 가니시에도 적용하고, 포그램프와 동일한 디자인의 리플렉터를 리어 범퍼에 배치해 앞모습과 조화롭게 마무리했다. 기아차는 상품성을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의 레이를 이번 달 중 고객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레이는 더욱 모던하고 깔끔해진 디자인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더해 출시할 것”이라며 “경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建資材 세미나 찾은 까닭은

건자재 업계는 '세미나 경쟁' 중

국내 건축자재 업체인 LG하우시스, 한화L&C, KCC는 매년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LG하우시스는 이달 5일, 한화L&C는 10월 24일에 세미나를 열었다. KCC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업체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앞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시장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자재 업체들은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사회·문화적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또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3사의 세미나에선 앞으로의 디자인 시장을 설명하는 트렌드 '키워드' 혹은 '테마'를 제안한다. 가장 최근 행사를 개최했던 LG하우시스의 올해 키워드는 '프로보크(Provoque)'다.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우아한 도발'이라는 의미의 키워드로 이와 함께 '드라마', '리베르', '얼라이'라는 3가지 테마도 함께 제시했다.

한화L&C의 올해 키워드는 '하비투스(Habitus)'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들은 매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제품과의 관계를 바꾸고 살아가고 있다"며 "삶은 변화하며 새로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는 장기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습관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3사 모두 각기 다른 특색을 지녔다. 특히, 어느 시장을 중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접근법이 달라졌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해 3사 중 가장 긴 역사



지난해 11월 개최된 2017/2018 한화L&C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 '인트렌드'에서 한영호 대표가 모두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L&C

LG하우시스

올해로 18회째...3社 중 가장 긴 역사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우아한 도발'

를 자랑하는 LG하우시스는 B2C 시장에 중점을 두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공간 자체를 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LG하우시스는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초청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B2B 고객과 B2C 고객 모두를 행사장에 초청해 세미나를 마케팅·영업의 장으로 활용했다.

한화L&C와 KCC는 B2B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한화L&C는 건축, 인테리어 관련 종사자 및 유사 업종 종사자, 전문

한화L&C

빅데이터 기술 활용 소비자 기호 분석
관련 업종 종사자 등 초청 'B2B' 중점

가 및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세미나에서는 김건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함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 인테리어 트렌드를 분석한 프로젝트의 결과 발표 시간도 마련됐다. 한화L&C 관계자는 "올해는 디자인 트렌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 소셜미디어 및 인테리어 전문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12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KCC의 핵심 세미나



지난해 10월 열린 KCC 2017/2018 CMF 트렌드 세미나 전시장에서 KCC 관계자들이 자동차도로 컬러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KCC

KCC

자동차 등 제조업에도 디자인 영향력
"트렌드 주도... 시장 경쟁서 우위 선점"

는 'KCC CMF'다. 컬러, 마티리얼, 피니시(마감)의 앞글자만 따 이 세미나는 타사와 마찬가지로 내년과 내후년 시장을 이끌 핵심 디자인 키워드와 메인 테마, 3개의 서브 테마를 제시한다. 올해로 3번째 행사를 앞둔 KCC 또한 B2B 고객들이 주요 타깃이다. KCC는 디자인 세미나를 통해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색깔과 소재, 제품 생산 소재와 마감재를 디자인에서 주요 이슈로 설정해 인테리어와 실외 장식 제품과 함께 전시한다.

KCC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동

차의 경우 소재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컬러도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KCC는 완성차 업계의 디자이너들이 동사의 세미나를 방문, 디자인 인사이트를 얻어 그들의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KCC가 제조산업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C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KCC가 시장의 디자인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매출, 트렌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자재 업계의 세미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인테리어 관련 B2C 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건자재 기업들 사이에서도 트렌드 예측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발 앞서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이 결국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일본 어디까지 가봤니?"... LCC, 日소도시 노선 확대

제주항공, 인천~마쓰야마 이어 가고시마 신규 취항
이스타항공은 '레저여행지' 미야자키 週 3회 정기편

일본 시코쿠 에히메현에 위치한 마쓰야마.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일본의 작은 도시다. 그러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꼽는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만화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온천탕이 바로 이곳을 배경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항공이 인천-마쓰야마 노선을 신규 추가하면서 마쓰야마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한 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마쓰야마 노선을 화·목·일요일 주 3회 운항한다.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40분 출발해 마쓰야마

에 낮 12시에 도착하며, 마쓰야마에서는 낮 12시 50분에 출발해 오후 2시 25분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화요일에는 인천에서 오전 11시 10분 출발해 마쓰야마에 낮 12시 40분에 도착하고, 마쓰야마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 인천에 오후 3시 25분에 도착한다.

제주항공은 마쓰야마 노선 추가에 이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또 다른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가고시마에도 6일부터 신규 취항했다. 가고시마는 제주항공이 일본에 정기노선을 개설하는 8번째 도시이자 13번째 한·일 정기노선이다.

마쓰야마에 이어 가고시마에 신규 취항 한 제주항공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오кина와 등 우리나라 여행자가 많이 찾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역도시까지 노선망을 넓혀 한·일 노선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전략이다.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도 이달부터 인천-미야자키 노선을 매주 화·목·토요일 주 3회 운항하기로 했다. 규슈 지방에 위치한 미야자키는 일본 현지인의 신혼 여행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골프 등 레저 여행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특

히 미야자키에는 6~7세기 백제 왕족이 이곳으로 들어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여행지다. 백제관도 자리하고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가고시마에 취항하기도 했다. 현재는 수·금·일요일 주 3회 운항하고 있으나 내년 2월 28일까지는 주 7회, 내년 3월 1일부터 동월 24일까지는 수·금·일요일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제주도와 일본 도쿄를 오가는 노선 운항에 나섰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일본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올해 들어서만 대구-오кина와, 대구-다낭,

인천-구마모토, 제주-오사카, 부산-오사카, 부산-다낭, 제주-도쿄 등 7개 노선을 개설했다.

이처럼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일본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LCC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LCC의 노선 확대는 다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며 관광객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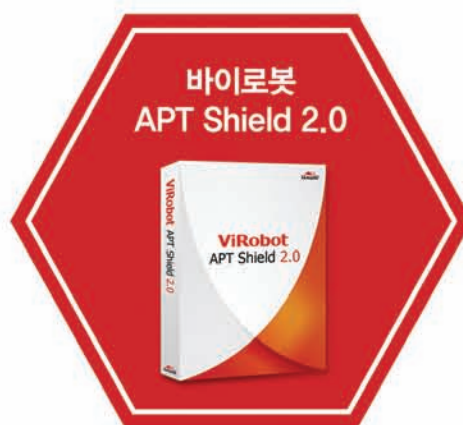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전국 28만 맛집 收錄 히트... ‘e식권 사업’ 月매출 250억 기대”

벤처 들쭉구

안병익 식신 대표

안병익(49) 식신 대표는 국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살아있는 화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 숙박, 부동산 O2O 업체들은 2013년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안 대표는 이미 O2O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2010년 이 시장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2010년 맛집 정보 푸드 O2O 기업 ‘식신’의 사업 모델을 이미 구상했다.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O2O 푸드테크 서비스는 그의 확신에서 탄생한다. 1993년 KT경제연구소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면서 위치기반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덕분이다. KT 사내 벤처인 한국통신정보기술을 공동 창업해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업자에게 인터넷지도를 공급하기도 한 안 대표는 친구·아이찾기 등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인 ‘포인트 아이’를 설립해 이를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2007년 127억 원에 포인트아이를 매

2013년 사용자 참여형 앱 ‘식신’
수요미식회 등 제휴 효과 톡톡

다운로드 350만·月방문 300만
추가 ‘★인증’ 통해 신뢰성 높여

각하면서 자타공인 성공한 벤처창업자 반열에 올랐다.

앞서 두 번의 창업으로 소위 대박을 터뜨렸지만 안 대표는 안주하지 않았다. 평소 그의 철학이 ‘체인지(변화)’인 만큼 여전히 배가 고팠다. 식신으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안 대표는 최근 식품과 기술이 결합한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을 이끌 협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는 지인들 사이에서 ‘아이디어 화수분’으로 불린다. 오십(50)을 앞둔 나이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카멜레온’ 같은 남자, 안병익 대표를 만났다.

- 식신의 탄생 배경이 궁금하다

“2010년 10월 식신의 모태가 되는 위치기반 서비스인 ‘씨온’을 만들었다. 씨온은 사용자가 올린 위치와 그 주변 정보를 표시하고 공유해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용자들이 특정 장소를 발굴해 ‘별도장’을 찍고 체크인과 리뷰를 쓰는 식이었다. 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 80만 건의 발자국 중 3분의 1이 음식점에 몰려 있었다. 이 결과를 보고 맛집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구상했고, 2013년 11월 식신이



안병익 식신 대표는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화’다.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회사가 지속 가능하려면 항상 변화해야 한다”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뀔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생했다. 식신은 ‘사용자 참여’라는 크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한다.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해 만들어진 정보의 생산성과 질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위키디피아와 같은 방식이다. 사용자가 직접 남긴 리뷰를 바탕으로 지역의 진짜 맛집을 추천해 주는 사용자 참여형 맛집 앱이다.”

- 꽤 빠른 시간에 식신이 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

“식신 사업 초창기 네이버가 골목상권 철수

를 선언하면서 맛집 안내서비스 ‘윙스폰’이 사업을 접었는데 이게 도움이 됐다. 이후 한국관광공사, 네이버, 수요미식회와 콘텐츠 제휴를 하면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다. 사용자들이 추천한 맛집을 우리가 한 번 더 검증해 별을 인증하는 서비스를 하면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신 앱에는 일반 맛집 25만 개와 핫플레이스로 뜨는 맛집 3만 개의 정보가 수록돼 전국 어디서든 소비자가 인근 식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식당 2만5000개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 내년에는 일반 맛집을 30만 개로, 핫플레이스를 8만 개로 늘려 모두 38만 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신 앱은 현재까지 350만 명이 다운로드, 월간 방문자수가 약 300만 명을 기록 중이다.”

-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뛰어 들었는데, e식권 사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식신은 광고가 전혀 없다.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기 위해 푸드와 IC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e식권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 1900만 명 25조 원의 식권 사업을 겨냥한 e식권은 기존의 종이식권 및 장부, 법인카드로 결제하던 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편하면서도 투명한 거래 내역이 특징이다. 특히 e식권을 도입하는 기업과 음식점 입장에서 종이식권 발행, 장부 정산 및 관리 등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크다. e식권을 도입한 곳은 LG그룹 등 총 150여 곳에 달한다. 주수가 확정된 곳도 20여 곳이 있어 내년 말까지 직장인 50만 명이 e식권을 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까지 월 매출 50억 원, 내년 말까지는 월 매출 25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 수수료로 받는 식신하iero나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는 어떤가

LG그룹 등 150개사 ‘e식권’ 도입
내년까지 50만 직장인 사용 전망

알리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유커 타깃 전국 가맹점 확대 나서

“식신하iero는 맛집 배달 서비스다. 식신에서 서비스 하는 맛집을 배달을 통해 제공해 보면 어떨까 해서 탄생했다. 율로족 증가로 맛집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사업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강점은 경쟁사와 달리 라이더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대행 연합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쟁사 대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전국 서비스에 유용하다. 강남, 서초에 이어 지난달 마포구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서비스에 도전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동안 정제됐던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도 다시 힘을 신는다. 스마트폰 단말기에 연결된 바코드 인식기로 관광객이 알리페이 혹은 위챗 앱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돼 언어의 어려움 없이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진다. 최근 사드 문제가 해방기를 맞으면서 중국인 90%가 사용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결제 가능 가맹점 모집에 한창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관광객의 편의성은 물론 국내 음식점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근 기자 nova@

기자가 써보니

청광 차단 보안경 ‘판타시아 블루컷49’

“모니터 눈시림 차단 이제 미간 펴고 일해요”

기자는 원래도 시력이 나빴지만 일을 하면서 더 나빠졌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기 때문이다. 랩톱과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청광)는 눈의 각막과 수정체로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망막에 도달해 현대인들의 망막을 손상하고 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사무직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지엘아이엔씨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개발한 보안경을 내놔다. 청광 차단 기능성 안경 ‘판타시아 블루컷49’는 권장 사용 기간과 제조 날짜를 명시한 국내 최초의 기능성 안경이다.

안경이나 선글라스 렌즈 표면에 처리된 기능성 코팅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에 사용할수록 산화되거나 마모된다. 아무리 비싼 렌즈를 맞춘다 해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주기적 렌즈 교체를 통해 각막을 보호하는 제품이라면 가격대를 높일 수 없다. 판타시아

전자기기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
망막에 직접 자극...시력저하 불러

투명한 필름 소재로 렌즈 착탈식 구조
청광 49%-자외선 99.9% 차단 인증



GL Inc.의 청광 차단 기능성 안경 ‘판타시아 블루컷 49’ 제품. 이투데이DB

블루컷49 보안경은 안경 앞부분만 교체 가능한 착탈식 구조다. 그러나 제품 가격이 1만 2000원 정도로 저렴한 경제적 부담 없이 매년 제품 전체를 구매할 수 있다.

또 간편한 클립형으로도 출시돼 ‘안경족’들도 본인의 안경 위에 가볍게 덧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는 하루 동안 판타시아 블루컷49를 착용하고 생활을 해봤다. 대단한 패션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깔끔하고 기능적인 디자인도 충분했다. 렌즈는 완벽히 유리처럼 보이지만 만져보면 더 가벼운 필름 재질이기에 때문에 착용해도 무게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 착용 후의 시야는 차이가 분명히 체감된다. 모니터 불빛에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노트북을 사용했을 때 렌즈가 제품을 착용하고 처음으로 미간을 폈다. 눈시림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회사에 따르면 판타시아 블루컷49는 블루라이트를 49% 차단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 또한 99.9% 차단하는 기능을 인증 받았다. 따라서 사무실에서는 물론 운전할 때, 라식·라섹 수술 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운전할 때 눈이 부시고 선글라스를 끼면 너무 캄캄해져 답답했다면 판타시아 블루컷49를 착용하면 된다. 운전을 즐기는 부모님께 빌려줬더니 매우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지엘아이엔씨는 청광 차단용 판타시아 블루컷49 외에도 3D 안경, 편광 선글라스 등 다양한 기능성 안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조 전 과정은 국내에서 이뤄진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중소 인사이드

‘反대기업 정서’ 편승인가, ‘밥줄 끊긴 中企’ 마지막 발버둥인가

비제이씨·오엔씨엔지니어링

“현대차가 우리 기술 빼앗았다” 폭로
현대차 “사실무근”...진실공방 양상
제대로 된 中企 보호 대책 안 나오면
‘제2의 기술탈취 공방’ 지속 우려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항로품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 초기에 기술탈취 피해 수사만 해준다면 오랜 기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램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두 중소기업인의 호소다. 현재까지 4000여 명이 청



원에 동참했다. 중소기업계가 최근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와 기계 및 부품 도소매·제조업체인 오엔씨엔지니어링은 5일 기

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자사 기술을 빼앗았다고 폭로하며 “정부가 기술탈취 문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탈취한 기술자료와 미생물 분석 결과 등을 이용,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은 “현대차가 요청해 개발한 프레스설비 부품에 대한 기술을 다른 제조업체에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이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권도 논박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현대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와 중기부의 칼끝이 현대차를 향하게 될 것을 우려한 증흥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측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기업=적폐’라는 프레임 논쟁까지 가세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라는 명목하에 문제인 정부 들어 불거진 이른바 ‘반(反)대기업’분위기를 타고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정부 차원의 대응에 쏠려 있다.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제1과제로 꼽은 홍준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공인된 안전금고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기술임치제도,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기술보호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대기업 옥죄기식 정책 일변도일 뿐이라면 ‘기술탈취’를 둘러싸고 제2, 제3의 공방만 이어져 피로감만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민정 기자 puri21@

대기업 ‘중소 기술탈취’ 논란

KB 금융그룹



상대가 누구든
이길 수 있다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만들 주인공들

그들이 만들 뜨거운 겨울을 KB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치고 나가는 거야

힘차게 출발!

KB금융그룹은



대한빙상경기연맹
KOREA SKATING UNION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KOREA BOBSLEIGH SKELETON FEDERATION



대한아이스하키협회
Korea Ice Hockey Association



대한컬링경기연맹
KOREA CURLING FEDERATION

을 후원합니다

가상화폐 테마株 편입 효과 ‘퓨처스트림네트웍스’ 77% 급등

지난주(12월 4~8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1.47포인트(0.46%) 하락한 2464.00포인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주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470선을 넘기지 못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602억 원어치와 5982억 원어치를 동반 순매도했고, 기관은 홀로 9498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한전기술, 2019년부터 英 원전 설계 매출 기대 =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전기술이 가장 눈에 띄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전주 대비 26.10% 오른 2만2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지역 원전 사업자인 누젠(NuGen)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한전기술은 이르면 2019년부터 설계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KTB투자증권은 전주보다 22.61% 올랐다. KTB투자증권은 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최근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최석중 사장에게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애초 시장의 관심이었던 대표이사 해임 등

함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현대차는 카세어링 사업 진출을 위해 AJ렌터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GF, 인적 분할 후 지주회사 고평가로 하락세 = 8일 BGF리테일의 인적 분할에 따라 신설 법인인 BGF리테일이 사업회사로, 존속법인인 BGF가 지주회사로 코스피시장에 각각 분할 재상장됐다. 이 중 BGF는 고평가 논란에 휘말리며 기존 BGF리테일의 인적 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직전 종가인 7만9100원보다 63.91% 하락한 2만8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분할 전 법인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98%와 영업이익의 96%가 사업회사인 BGF리테일에서 발생함에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이 65대 35

‘英 원전 우선협상자’ 한전기술 26% 뛰어 상승률 1위

동부제철·DSR제강, 中 동절기 철강 감소로 강세

‘고평가’ BGF 64%↓...금호타이어 법정관리 우려 49%↓

과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채 일 단락돼 시장의 불안이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8일 기준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23.51%와 16.39%로, 둘 다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려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동절기 철강 감산을 결정한 영향으로 철강주인 동부제철과 DSR제강이 각각 전주 대비 16.61%, 14.02%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중국 철강 가격은 지난달에만 21.7% 오르는 등 감산 정책으로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DSR제강의 경우 지난주 정치 테마주가 주목받은 영향으로 문제인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돼 상승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AJ렌터카는 현대차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주보다 13.68% 올랐다. AJ렌터카의 최대주주인 AJ네트웍스는 이달 1일 AJ렌터카의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분 매각 등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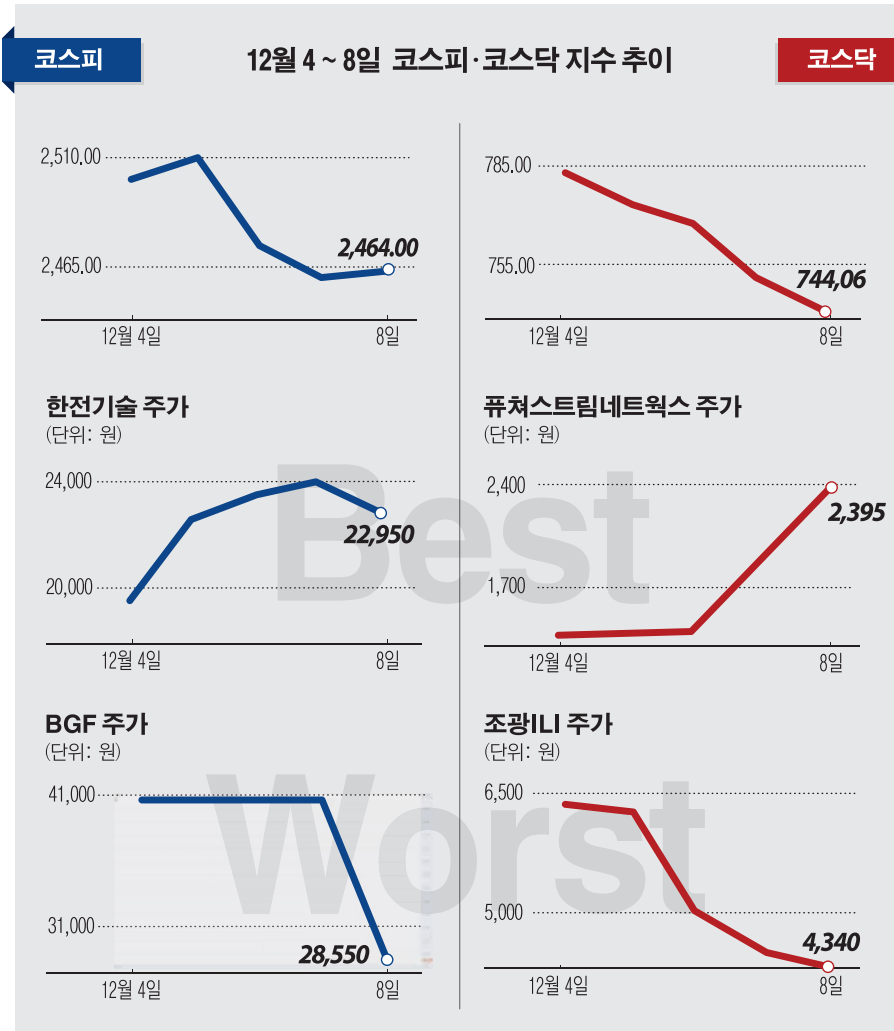
로 책정돼 지주회사의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BGF리테일의 주가는 재상장 첫날 시초가보다 29.77% 오르며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가능성이 보도된 영향으로 전주 대비 49.63%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주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P-플랜(Pre-packaged Plan)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올해와 내년엔 걸친 73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추정치와 내년 5월 초 완료 예정인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6일 공시한 영향으로 전주보다 37.63% 하락했다.

베스트&워스트 12월 4~8일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8일 시가총액	12월11일	12월8일	주가등락률
한전기술	877	18,200	22,950	26.10
KTB투자증권	267	3,605	4,420	22.61
동부제철	176	6,020	7,020	16.61
이앤씨	128	5,020	5,850	16.53
신원	130	1,775	2,060	16.06
휴비스	352	8,880	10,200	14.86
씨나전자	87	2,550	2,915	14.31
DSR제강	80	4,850	5,530	14.02
AJ렌터카	442	17,550	19,950	13.68
유양디엔유	243	4,145	4,650	12.18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8일 시가총액	12월11일	12월8일	주가등락률
BGF	921	79,100	28,550	-63.91
금호타이어	535	6,720	3,385	-49.63
삼성중공업	2,980	12,250	7,640	-37.63
코오롱머티리얼	133	3,585	2,950	-17.71
삼화전기	73	13,350	11,000	-17.60
코리아세티	332	17,000	14,050	-17.35
병양건영	47	2,400	1,990	-17.08
삼성제약	167	4,840	4,070	-15.91
한진중공업	330	3,640	3,110	-14.56
동아에스티	765	106,000	90,600	-14.53

(시총: 십억 원, 증가: 원)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8일 시가총액	12월11일	12월8일	주가등락률
퓨처스트림네트웍스	115	1,355	2,395	76.75
시큐브	61	1,340	1,785	33.21
신라섬유	70	2,235	2,885	29.08
CS	43	1,775	2,280	28.45
아스타	169	14,100	18,000	27.66
알서포트	150	2,260	2,820	24.78
트레이스	107	1,655	2,065	24.77
코대즈컴바인	110	2,370	2,910	22.78
유아이디	45	3,110	3,790	21.86
인텍플러스	62	4,610	5,590	21.26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8일 시가총액	12월11일	12월8일	주가등락률
조광비	43	6,130	4,340	-29.20
인터플렉스	1,113	64,500	47,700	-26.05
CMG제약	636	7,780	5,840	-24.94
에이원엔	96	5,470	4,320	-21.02
테고사이언스	292	96,800	77,100	-20.35
홀캐스트	480	18,600	14,900	-19.89
넷게임즈	284	3,050	2,465	-19.18
시노텍	250	4,700	3,820	-18.72
인트론바이오	522	42,500	34,700	-18.35
오스템	142	6,600	5,450	-17.42

※자료: 에프앤가이드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43.64포인트(5.54%) 하락한 744.06포인트로 마감했다. 상승장을 주도하던 바이오주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코스닥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개인은 463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9억 원, 3011억 원어치를 팔아 대조됐다.

◇퓨처스트림네트웍스, 가상화폐주로 묶이면서 강세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전주 대비 76.75% 오른 퓨처스트림네트웍스였다. 이 회사는 엘로모바일 계열사로, 엘로모바일은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엘로모바일이 52.39%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 데일리금융그룹이 코인원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알서포트는 블록체인협회가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주보다 24.78% 올랐다. 블록체인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 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 등의 수단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

한 ‘불뚱’= 인터플렉스는 애플의 ‘아이폰X’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인 RF-PCB(경연성 인쇄회로기판) 불량 논란을 겪었다. 이 부품은 기온이 하락하면 작동이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터플렉스 주가는 전주 대비 26.05% 떨어졌다. 이 회사는 4일 답변공시를 통해 관련 부품 생산을 중단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인터플렉스가 공급하는 부품의 하자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제약·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표적항암제 개발로 주목받았던 CMG제약은 지난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전주보다 24.94% 하락했다. CMG제약은 지

시큐브, 일본 QR코드 인증시스템 특허 취득 33% 상승

제약·바이오株 부진...CMG제약, 차익실현에 25% 하락

넷게임즈, 신작 ‘오버히트’ 흥행과 반대로 주가는 내림세

해졌다. 알서포트는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비대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큐브는 일본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인증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권을 취득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해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의 지불결제 및 이체, 증권 거래 등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인증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메모리 해킹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타는 진단 시스템에 대한 기술보유가 부각되며 전주 대비 27.66% 상승했다. 아스타는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한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 6일 “국내 병원과 지난해 매출액의 10% 이상의 진단 시스템 판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가격 및 상제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플렉스 ‘아이폰X’ 부품 불량 논란

난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CMG2014’의 미국 임상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승세를 탔다. 현재 CMG제약은 표적항암제와 관련해 8개의 신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6일 공매도 거래가 중지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테고사이언스가 20.35% 하락했고, 슈파바테리아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인트론바이오도 같은 기간 18.35% 하락하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넷게임즈는 지난달 28일 신작 모바일 게임인 ‘오버히트’를 정식 출시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게임의 흥행과는 반대로 주가는 내림세를 보이며 전주보다 19.18% 하락했다. 신작 출시 전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게임주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민호 기자 minor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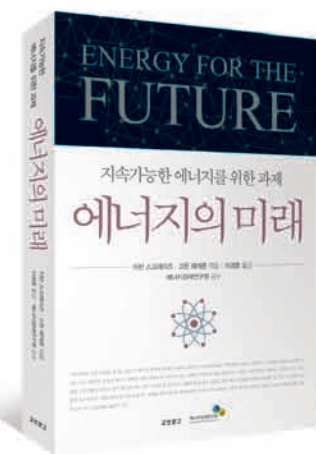
‘탈 석탄’ ‘탈 원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NERGY FOR THE FUTURE

에너지의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반 스크레이즈·고든 매케른 외 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수 | 384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에너지 왜 변화 못하나?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하다.

황사와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던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갈날이 되어 돌아왔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문의: 02-3156-382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PLATFORM REVOLUTION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올해의 비즈니스 필독서
‘800CEO리드’ 베스트셀러



마셜 밴 앨스타인 외 2인 지음
512쪽 | 부키 | 값 22,000원

정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들이 저술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화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기존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게끔 영감을 주는 안내서. _ **김해관 사내베, 전 SAP 최고경영자** 완벽하다. 그리고 도발적이다. _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에게 특별히 취약한 플랫폼적 사고를 일깨워주고 빅데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_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문의: 02-3142-0484

한컴시큐어, 코인링크에 보안기술 공급

〈가상화폐 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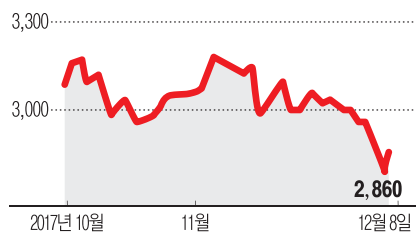
가상화폐 전자지갑 '월렛' 보호 거래소 4~5곳과도 협업 논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법 추진

통합 정보보안 솔루션 전문기업 한컴시큐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에 보안기술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메이저 가상화폐 거래소 4~5곳과도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11일 한컴시큐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서트온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의 월렛(가상화폐 지갑) 보호에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월렛은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다. 최근 월렛이 해킹되거나 보안이 풀리는 등의 가상화폐 거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며 보

한컴시큐어 주가 추이

(단위: 원)



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인링크는 코스닥 상장기업 포스링크가 자회사 썬트온을 통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코인 등 5종류의 코인거래를 우선적으로 상장 오픈했다. 전문 트레이더들에게 최적의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비트렉스, 플로닉스, 빗썸, 코인원 등 국내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

세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컴시큐어는 코인링크에 이어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와도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회사는 보안 영역을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컴시큐어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곳 및 가상화폐 거래소 플랫폼 운영업체 등 메이저 가상화폐 거래소 4~5곳과도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고객사명을 오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론칭 전 단계로 월렛보호, 공인인증서와 같은 개인 암호키 보호, 블록체인 기반의 협업 등을 다양하게 논의해 구현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컴시큐어는 보안 1세대 전문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국내 대표 보안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으로 발전해 왔다. PKI기반 공인인증, FIDO기반 생체인증, 모바일 보안, 통합 키 관리, 데이터 암호화, 통합인증·권한관리·계정관리에 이르는 자사 개발 솔루션과 국내외 여러 파트너사의 솔루션 공급을 통해 통합 정보보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최근 1000만 원(비트코인 당 가격)을 돌파한 이후 2주도 채 되지 않아 2000만 원을 훌쩍 넘겨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대형 거래소 선물(Futures) 상장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고, 배당처럼 받게 되는 파생 코인(Coin·가상화폐를 말함)을 받기 위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코오롱생명과학, 50% 무상증자

유동성 확대… 활발한 거래 기대

코오롱생명과학은 보통주 1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는 5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주배정 기준은 2018년 1월 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18년 1월 25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기존 주식수는 761만890주며,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주를 제외한 후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380만1466주(액면가액은 500원)로 향후 총 주식수는 1141만2356주로 증가하게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총 매출 1583억 원, 영업이익은 184억 원, 당기순이익 127억 원을 달성했다. 2016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약 5000억 원(457억 엔)의 라이선스 아웃, 2017년 11

월 인보사 시판, 2018년 1월부터 경증환자(Kellgren & Lawrence grade 2)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이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KLS-2031)는 다양한 진통 기전 유전자 전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신개념 통증 치료제로 2018년 임상 1상 임상시험을 신약(INN)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코스닥 시총 30대 기업의 평균 주식 유동성에 부합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유동 물량이 확대되면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림 기자 hura@

대한뉴팜 ‘탐부틴정’, 2년 연속 러시아 베스트 의약품

대한뉴팜은 탐부틴정(수출명 트리메타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 파마 어워드(The ceremony of granting the Russian Pharma Awards)에서 2회 연속 진경제 부문 베스트 의약품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러시아 최대 전문직 네트워크(Doctor at work)를 이용하는 50만 명 이상의 의료진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의약품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현지 의료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탐부틴정(말레인산트리메부틴)은

소화관의 각종 질병 부위 근육을 정상적인 생리 활성 상태로 복원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 간편한 위장관 운동 조절제이다. 대한뉴팜은 러시아에서 연 매출 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뉴팜은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채널 원(Channel One)을 포함한 러시아 10개의 지역방송에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2018년도에 3년 연속 베스트 의약품 선정과 매출액 40% 성장 목표 초과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림 기자 hura@

더존비즈온, 와탭랩스 ‘IT 모니터링’ 도입

‘비즈박스’에 서비스 적용

더존비즈온은 더존ICT그룹 강촌 캠퍼스에서 클라우드 기반 IT 모니터링 서비스 업체인 와탭랩스와 사업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와탭랩스는 물리 서버,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기업 IT 인프라 모니터링 서비스 분야의 국내 1위 업체이다. 전통적인 서버 환경은 물론,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컴퓨트 엔진(GCE),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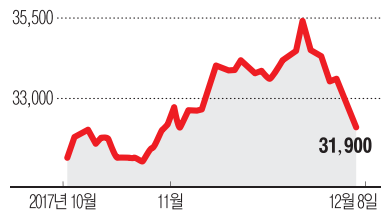
더존비즈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룹웨어 솔루션인 비즈박스(Bizbox)에 와탭랩스의 IT 모니터링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다. 비즈박스 사용 고객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수준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향후 더존비즈온의 다른 사업 분야까지 서비스 제휴 범위를 확장하고, 서로 간 고객사를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인 와탭랩스 대표는 “당사의

더존비즈온 주가 추이

(단위: 원)



IT 모니터링 서비스는 다양한 IT 환경을 한 곳에서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고, 장애 발생 시 실시간 감지해 알려주는 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존비즈온은 더욱 안정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장의 요구에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구 더존비즈온 상무는 “비즈박스는 기업 운영의 핵심인 ERP와 사물 고객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수준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큐렉소 ‘무릎관절 수술로봇’ CE 인증

자회사 TSI 개발… 글로벌 기업과 판매 제휴 늘 듯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는 자회사인 TSI(THINK Surgical Inc.)가 인공관절 수술로봇 신제품의 CE 인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무릎관절 부분이며, 엉덩관절 부분은 2015년 획득한 바 있다.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집머바이오테 아시아와의 협업으로 이미 호주 내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적응 증인 엉덩관절, 무릎관절 CE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유럽뿐 아니라 CE를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들의 본격적인 판매 확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큐렉소는 9월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 회사 집머바이오테 아시아와 호주, 일본 지역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10월에는 호주정형외과학회(AOA)에 참가해 수술로봇 신제품을 론칭하는 등 호주시장 판매를 위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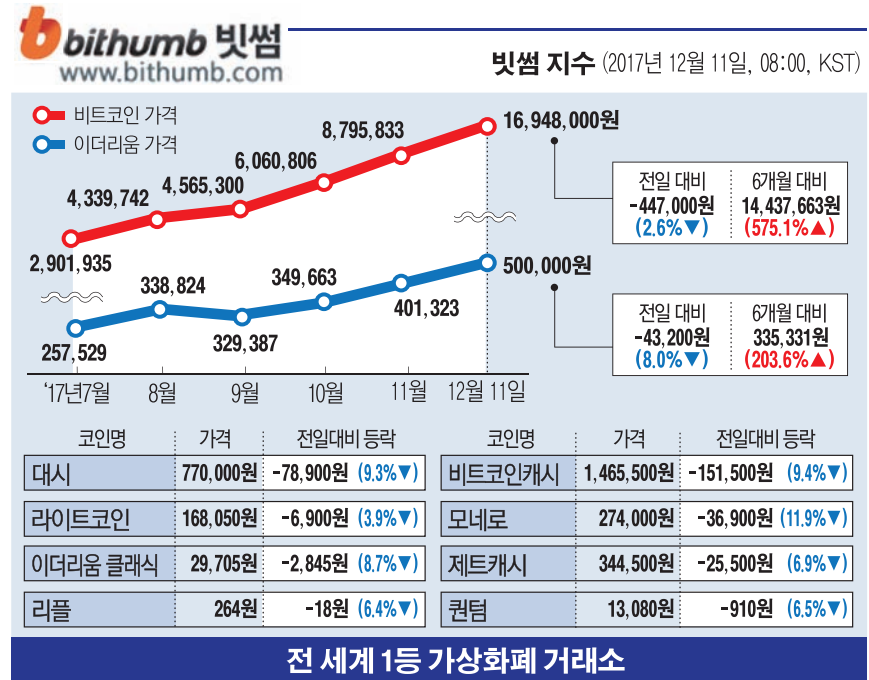
호주는 CE인증 의료기기에 대해 자국 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어, 이번 CE승인을 도화선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판매제휴가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또 회사는 이번 CE획득이 아시아지역 판매 확산과 현재 임상시험 중인 FDA 무릎부분 인허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큐렉소 관계자는 “미국 내 인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현재 30% 등록 완료 상태”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지어 연내 무릎부분 인허가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지역 판매를 위해 현지 컨설팅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를 추진 중이며, 집머바이오테 아시아·파시픽 내 협약지역을 늘리는 등 글로벌 판매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술로봇 신제품은 부산 센텀병원에서 최초 도입돼 9월부터 3개월 만에 50건의 수술을 완료하는 등 안정적인 수술을 제공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돈만 있으면 노후준비 다 된 것일까?

- PART1. 돈에서 자유롭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 PART2. 돈보다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먼저다
- PART3.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 돈 말고 꼭 있어야 할 것들
- PART4. 알뜰하게 기부하는 사람들 - 후반기 인생 연산의 미학
- PART5. 내가 기획한 대로 사는 삶,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다

특별초대석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언제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다. 이 시대의 멘토,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기억장치, 외장하드다. 어제 만났더라도 오늘 다시 만나면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가 샘솟는다. 그사이 언제 이런 걸 새로 길어 올랐을까 싶을 정도로 그에게는 늘 말이 차고 넘친다. 모든 사회적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한 뒤 지금은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직만 유지하고 있는 그를 만나 세(세인공자)능과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명과 시니어 세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제2직업



은퇴 후 인생, 드론과 함께 하늘에 맡겨볼까?

택시운전사를 전망하던 시대가 있었다. 차량의 증가를 운전자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던 시절. 그때만 해도 운전면허증은 우월함의 상징이었다. 미래에도 그런 시대가 올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바로 최근 유행하는 드론 얘기다. 이제 드론은 사람을 나르고, 농기제로 쓰고, 짐을 배달하고, 군사용으로 쓰인다.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을 보면 자동차 문화가 시작되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자동차도 처음 나왔을 땐 지금의 용도를 상상하지 못했다. 드론도 그렇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내 인생을 위해 노래하다
아모르파티 가수 김연자

“비보 같은 사람 이야기를 쓰고 싶다”
작가 김주영, 고독한 남자의 삶을 말한다

2005년 9월 2일
DMZ박물관에서 우리 만나!
천체 사진작가가 된
前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경호씨

호로록, 따끈한 우동에 꼭 빠져볼까요?

호로록!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얼어 있던 몸을 녹여준다. 면을 찰떡 뽕아를 올리자 국물이 얼굴을 때린다. 조금 툇 국물이 대수인가. 통통한 면발을 한입 오물거리다가 삼키면 그저 행복할 뿐이다. 꿀깃하고 깔끔한 우동을 맛보고 싶다면 '카덴'을 추천한다.

12월의 맛

이봉규 심화 데이트
‘발레의 하느님’에게 붙잡혔다!
광주시립발레단장 최태지

국립발레단장을 맡고 변방의 한국 발레를 르네상스 시대로 이끈 최태지의 업적과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이 중첩되어 한량 이봉규는 살짝 주눅이 들었다. 한국의 대표 발레리나 최태지와 올해 마지막 데이트를 했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김수영·김영선·김종영·박애란·육영애·정원일·조광래
빛에 대하여...

부치지 못한 편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하늘나라에도 우체통이 있어요?

SAMSUNG

크고 작은 어떤 먼지도
쉽고·빠르고·남김없이 흡입하고

손이 닿기 힘든 가구 위·아래도
손목·허리·무릎까지 편하게

누구도 피곤할 수 없는
압도적 청소력

청소기의 절대기준
삼성 POWER Gun



삼성 파워건
독일 국제 공인 시험기관 SLG
미세먼지 차단 최고등급 5 Stars 획득

영국 알러지 협회 BAF
알러지 차단 평가 5개 항목 모두 통과



QR코드로 자세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당 5,000번 회전하는 2개의 터보 브러시와
토네이도보다 강력한 150W의 디지털 인버터
모터로 어떤 먼지도 쉽고 빠르고 남김없이
흡입하여 한번만 밀어도 빈틈없이 깨끗해집니다



50도까지 꺾이는 인체공학작 플렉스 핸들로 손이 닿기 힘든
가구 아래도 손목, 허리, 무릎 부담 없이 편하게 청소가
가능하며, 대강한 브러시로 손이 닿기 힘든 가구 위부터
천장 틈새까지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최고 등급을 획득한 5중 정정 헤파
시스템을 적용해 청소를 흡입한 미세먼지까지
99.999% 걸러내 배출을 차단하고, 알러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 흡입력 측정은 IEC 60312-1 기준 토네이도 시험/저속 실험으로 실시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당사 인버터 모터 회전속도 190 m/s, Fujita Tornado Damage Scale 55.42 m/s 기준 * 브러시 회전 수는 토네이도 시험/2개 브러시 기준 흡속, 저속 실험으로 실시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독일 국제 공인 시험기관 SLG에서 미세먼지 차단 최고등급 5 Stars 획득, 영국 알러지 협회 BAF 알러지 차단 평가 5개 항목 모두 통과